

↑ 코스피 2629.44 (+37.58)	↑ 코스닥 845.82 (+3.91)
↑ 금리 (연이자율) 3.512 (+0.044)	↓ 환율 (원/달러) 1379.20 (-3.00)

‘분양가 너무해’
서울서 ‘줍줍 물량’
무더기 등장
02



개그맨 황현희(왼쪽부터), 존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 김미경 강사, 송은이,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 한상준 변호사가 지난달 22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유명인 사칭 온라인 피싱범죄 해결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유명인 사칭’ 온라인 피싱 사기 기승

석달새 1200억 피해 빅테크社, 공조 시급

#. 얼마전 정년퇴임한 B씨는 구글 웹페이지에서 발송인 유재석이 최소 1000만 원을 투자해 하루에 20% 수익을 얻었다는 배너 광고를 보고 퇴직금 일부인 1억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이는 유명인을 사칭한 사기 광고였다. B씨는 뒤늦게 경찰에 신고했지만 해외IP와 대포통장을 통해 범행이 이뤄져 가해자를 잡는 데 난항을 겪고 있다.

최근 유명인을 사칭한 온라인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며 피해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글로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등에서 게시되는 가짜 광고 색출 작업이 조속히 시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 이에 따라 플랫폼 기업과 정부의 해결 노력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유명인 사칭’ 피해, 누적 1조 이상 정부, 불법광고 등 현혹 주의 당부 메타, 가짜·사기광고 대처 미온적 유사모, 계정정지 등 강력조치 촉구

22일 경찰 집계 따르면 유명인 사칭을 포함한 ‘투자리딩방’ 불법행위 피해 건수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만 1000건이 넘고 피해액은 1200억을 넘어섰다. 범조계는 유명인 사칭 범죄 피해액은 누적 1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있다.

이같은 사칭 피해가 극성을 부리면 서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기관들도 유명인 사칭 불법광고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이용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하며 ‘고수의 보장, 유명인 투자 후기’ 등 허위 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해당 금융업체가 금융감독원에 정식 신

고된 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불법행위 확인·피해 발생 시 금융감독원과 경찰서에 신고하도록 안내했다.

최근 방송통신위원회도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온라인 상의 각종 사칭 피해 예방을 위한 ‘제1호 이용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박명진 방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 통신분쟁조정담장은 “온라인피해365센터에 접수된 내용을 바탕으로, 온라인 피해지원협의회와 협의를 거쳐 피해주의보를 발령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온라인피해365센터는 지난 2022년 5월 문을 연 온라인 피해 상담창구다. 통신 서비스 관련 피해, 사이버금융범죄, 권리침해(허위리뷰·초상권 침해) 등에 관한 상담을 해준다.

문제는 가짜뉴스와 사기 광고에 대한 메타의 미온적인 태도다. 지난해 10월부터 본격 시작된 연예인, 경제전문가 등 유명인 사칭 범죄는 페이스북에서 시작돼 유튜브로 번졌으며, 카카오 특 네이버 밴드 등의 플랫폼을 통해 기하급수적으로 퍼졌다. 네이버와 카카오 오는 사칭 광고에 대한 신고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지난달 ‘유명인 사칭 온라인 피싱 범죄 해결을 위한 모임’(유사모)가 거대 플랫폼에 해결 노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지만 메타 플랫폼에서는 유명인 사칭·사기 광고는 지속되고 있다.

다만, 최근 구글과 메타는 가짜 뉴스에 대한 대응책을 내놨다.

구글은 지난달 고객지원 홈페이지의 광고 정책 페이지를 통해 사칭 행위가 발견되면 경고 없이 계정을 정지하는 윈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2면에 계속)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수업 거부’ 의대생들, ‘반수’길 오른다

의대 중도 탈락생 73%가 ‘지방권’ 정원 늘리자 ‘상위권대’ 입시 도전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에 반발하며 의대생들의 집단 수업 거부가 이어지는 가운데, 보다 상위권 의대로 재진학을 노리며 반수하는 의대 휴학생들이 이미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입시에서 의대 정원 및 지역인재전형이 확대해 전국 의대 입학 합격선이 낮아진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지만, 서울권 의대 문턱은 더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아울러 상위권 의대를 향해 이탈한 자리를 메꾸는 ‘의대 편입학’ 여석도 올해 더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2일 입시계에 따르면, 동맹 휴학에 따라 ‘반수’하는 의대생이 이전보다 올해 많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대치동 한 학원 관계자는 “몇 년 사이 불고있는 의대 돌풍에 더해, 최근 비수도권 의대에 이미 들어간 학생들마저 수도권 대학 의대 진학을 노리는 분위기”라고 귀띔했다.

기존에도 의대생들이 상위권 의대로 진학하기 위해 다시 입시를 치르는 사례는 매년 있었다.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2년 의대 중도 탈락생 203명 중 73.4%에 해당하는 149명이 비수도권 의대 출신이었다. 보다 상위권 의대로 가기 위한 움직임이라는 분석이다. 올해는 이같은 사례가 큰폭으로 늘

것이라는 게 입시계 중론이다. 의대 정원이 늘어나 의대생 사이에서 내년에는 현재 재학 중인 의대보다 상위권에 합격할 가능성이 크다는 기대 심리가 작용하기 때문이다. 지방권 의대생들은 수도권으로, 수도권 학생들은 서울대·연세대·성균관대·울산대·가톨릭대 등 ‘빅5’와 같이 보다 합격선이 높은 의대로 진학을 계획한다는 의미다. 다만, 의대생들이 입시 학원을 등록할 때 자신의 현재 소속을 굳이 밝히지 않아 그 규모를 집계할 수 없다.

이처럼 N수생에 더해 기존 의대생의 의대 입시 도전이 늘어나면서 메이저 의대 경쟁은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2면에 계속) /이현진 기자 hnj@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정진석 신임 비서실장을 소개하고 있다. /뉴스1

尹, 비서실장에 정진석... ‘첫 정치인’ 발탁

신임 정무수석에 홍철호 내정 야, 정 내정자 ‘친윤색깔’에 반발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에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을 내정했다. 또 이날 오후엔 신임 정무수석으로 홍철호 전 의원을 내정했다. 4·10 총선 다음날인 지난 11일 이관섭 대통령비서실장 및 대통령실 참모진이 사의를 표명한 지 12일 만의 일이다. ‘정치인 비서실장’과 ‘기업인 출신 정무수석’의 발탁은 그간 여야와 소통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의식해서인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6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1층 브리핑룸에 정진석 의원과 함께 등장해 정진석 의원을 신임 대통령실

비서실장으로 내정했다고 밝혔다.

정치인 비서실장에 거는 가장 큰 기대는 ‘협치’다. 윤석열 정부 들어 정치인 출신 비서실장은 정진석 내정자가 처음이다. 그간 윤 대통령이 비서실장으로 발탁한 이들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관료 출신들이었다.

이는 그간 ‘정책통’을 발탁했던 것과 달리 여야 협치, 대국민 소통에 더 방점을 두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그간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영수회담을 한번도 하지 않았고, 야당뿐 아니라 여당과의 소통도 부족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이날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내정자 임명을 발표하고 “지난 2년 동안 중요한 국정과제를 설계하고 집행하는 쪽에 업무의 중심이

가 있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 방향, 정책은 좁혀져 있다”며 향후 국정방향을 소통 강화에 두겠다고 말했다. 이는 앞으로 ‘정진석 신임 비서실장’의 임무가 대국민 소통, 여야 협치라는 점을 보여준 셈이다.

이어 이날 오후에는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 다시 내려와, 함께 온 홍철호 전 의원을 새로운 정무수석으로 소개했다.

한편, 정진석 비서실장 내정자에 대한 여론 일부와 야권에서는 정진석 내정자의 ‘친윤’(친윤석열) 색깔 때문에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야당 역시 정 내정자를 ‘친윤 핵심’으로 지칭하며 반발했다.

/서예진 기자 syj@

뉴스터미널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윤, 한 총리에 “중동발 불확실성 증대... 국민과 소통하며 민생 안정” 당부
▲ “새롭게 거듭나겠습니다” 고개 숙인 국민의힘 22대 국회 당선자들 (사진 뉴스1)

▲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자’ 56%... ‘더 내고 그대로’ 42.6%
▲ 한국노총 “최저임금 차등적용, 5월 국회서 폐지하라”... 여야에 공문



▲ 여 원외위원장들 “당대표 선거 ‘국민 50%·당원 50%’ 반영하라”
▲ 조정식 “22대 국회의장, 명심은 나... 거부권 제한 180석으로 조정” (사진 뉴스1)

서울은 청약불패?... 분양가 부담에 '줍줍 물량' 14가구 등장

강동구 '더샵 둔촌포레'

지난달 1순위 청약 경쟁률 93대1 84㎡ 분양가 최고 13억5180만원 86% 계약포기, 14가구 무순위청약

서울 집값이 상승세로 돌아섰지만 강동구 아파트에서 무더기 계약포기로 무순위 청약 물량이 나왔다. 청약통장도 필요없는 소위 '줍줍' 물량이다. 후분양 단지로 자금일정이 빠듯하기도 했지만 가장 큰 원인은 주변 아파트 대비 매력 없는 분양가였다.

22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이날 서울 강동구 둔촌동에 짓고 있는 '더샵 둔촌포레' 14가구에 대해 무순위 청약이 진행됐다. 둔촌포레는 기존 현대 1차아파트를 리모델링한 단지다. 지하 2층, 지상 14층, 8개동 규모로 조성됐다. 전체 총 572세대로 리모델링 전보다 74가구가 늘었다. 9호선이 지나가는 중앙보훈병원 바로 뒤에 위치해 있다.



더샵 둔촌포레 조감도.

/포스코이앤씨

지난달 최초 청약 당시는 흥행에 성공했다. 일반공급 1순위 청약에서 47가구 모집에 4374명이 몰려 평균 경쟁률 93대 1을 기록했다.

무난히 완판될 것이라 예상과 달리 당첨자 74명과 예비당첨자 370명 등 총 444명 가운데 60명만 실제 계약에 나섰다.

86%는 계약을 포기하면서 나머지 14가구가 이번 무순위 청약분으로 나왔다.

지금 계획 등이 마련되지 않은 '묻지마 청약'이 많았다고 하지만 시장에서는 다소 높은 분양가가 부담이 됐던 것으로 보고 있다.

둔촌포레의 전용 84㎡의 분양가는 층

별로 다르지만 12억9300만원에서 13억5180만원이다. 바로 옆에 위치한 둔촌푸르지오의 경우 같은 전용 84㎡(21층)가 지난달 12억원에 거래됐다. 올 들어 소폭 오른 가격으로 작년에는 11억원 선에서 실거래 신고가 많았다. 둔촌포레가 신축임을 감안해도 싸다고 보긴 어려운 분양가다. 규제가 풀리면서 분양가 상한제는 적용되지 않았다.

주변에 대규모로 공급이 예정되어 있는 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둔촌주공을 재건축해 국내 최대 규모로 좁히는 재건축 단지인 '올림픽파크포레온'이 오는 11월 입주를 앞두고 있다. 무려 85개동에 1만2032세대가 들어온다. 당분간 매매는 물론 전세까지 주변 시세가 주춤할 수밖에 없다.

올림픽파크포레온의 전용 84㎡의 분양가는 둔촌포레와 같은 13억원 선이다. 입주권은 분양가보다 6억~7억원 웃돈이 붙어 지난달에만 최저 19억원에서 최고 20억원에 거래가 됐다.

둔촌포레는 지난달 말 기준 건축공정률이 74.7%로 오는 11월 입주예정인 후분양아파트다. 오는 9월 초까지 분양가의 40%를 모두 내야 하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후분양인 만큼 건축 공정상 발코니 확장 및 시스템에어컨을 모두 수락하는 조건으로 청약이 가능하다. 계약시 아파트 분양가와 발코니 확장비, 시스템에어컨 금액의 각 10%를 납부해야 한다. 7층 기준으로 분양가의 10% 1억3357만원에 옵션 비용 10%인 289만원을 더해 1억3646만원이다.

이번 무순위 청약 물량은 모두 전용 84㎡로, 국내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이거나 미성년자라도 자녀를 양육하거나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세대주면 가능하다. 청약통장 가입여부는 상관없다. 거주무 기간이 없고, 해당제한도 없지만 앞으로 1년간 분양권 전매는 금지된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韓日, 공급망 안정화 협력... 도레이, 국내 1.2억 弗 투자

6년만에 산업통상장관회담

경제인회·재계회 등 협력 촉진 2050 탄소중립 목표 협력 확대

도레이, 내년까지 생산라인 증설 고내열 메타아라미드 섬유 생산

한일 양국이 6년 만에 장관급 회담을 갖고 공급망 안정화 등 협력을 추진키로 했다. 일본의 글로벌 화학기업 도레이사는 국내에 첨단 아라미드섬유 제조시설을 설립하는 1억2000만달러 규모 투자를 확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안덕근 장관이 일본 도쿄를 방문해 사이트 겐 일본 경제산업대신을 만나 산업·통상·에너지 분야 전반에 대한 양국 정상간 합의 사항의 후속 조치와 미래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은 2018년 이후 6년 만에 상호방문을 통한 첫 정석회담이다.

양측은 우선 작년 3월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기업간 협력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양국 정부-경제계 간 협력을 장려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한일 경제인회와의 재계회의 등 경제단체 간 협력을 촉진하는 한편, 상호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일본 경제산업성 접견실에서 사이트 겐 일본 경제산업성 대신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산업부

투자기업 지원을 위해 산업부와 SJC(Seoul-Japan Club), 경제산업성과 주일한국기업연합회 간 정기적 소통채널을 구축·운영키로 했다.

또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양국간 탈탄소·신에너지 분야 협력 확대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한국의 무탄소 에너지 이니셔티브(CFEI)를 통해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청정수소와 암모니아 협력도 추진키로 하고, 향후 국장급 한일 수소협력대

화를 통해 협력방안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특히 공급망 안정화는 양국이 공동으로 당면한 과제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정보공유 등을 실시하는 대화 설립에 합의했다.

양국은 이밖에 한일중 3국간 협의되는 제13차 한일중 경제통상장관회의의 성공적인 개최와 올해 상반기 추진 중인 한미일 산업·상무장관회의에 협력하기로 했다.

한편, 일본의 도레이사와 반도체 핵

심 소재기업 A사가 1억2000만달러 규모 한국 투자를 확정하고 이날 투자신고서를 제출했다. 도레이는 2025년까지 생산라인 증설 등 사업 확대를 위해 한국에 대규모 투자를 계획 중이며, 앞으로도 지속 투자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날 신고한 아라미드섬유 제조 시설이 2025년 완공되면 전기차 구동 모터 등에 활용되는 고내열 메타아라미드 섬유가 생산된다.

안덕근 장관은 투자신고식에 이어 일본 대표적인 화학기업을 만나 음극재 제조시설 투자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세계적인 반도체 장비 기업인 도쿄 일렉트론(TEL)을 방문 가와이 도시키 최고 경영자와 회담했다. 이어 '일본시장 수출진흥회의'를 주재하고 일본에 진출한 SK하이닉스, 대한항공, 포스코 등 우리 기업들의 목소리를 듣고 일본시장 수출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안 장관은 "일본은 우리나라의 4대 무역국이자 공급망 협력을 위한 핵심적인 파트너라는 점에서 우리기업들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일본시장 수출 확대를 위해 정부차원의 맞춤형 지원과 함께 한일 양국 정부 간 소통과 협력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 1면 '수업 거부 의대생들'서 계속



서울시내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메이저 의대 입시, 더욱 치열해질 것”

또 다른 학원 관계자는 “이미 의대 합격 경험이 있는 우수 지원자들이 메이저 의대 입시로 유입되면서, G3 학생으로서의 졸업생 지원이 제한되는 서울대 지역균형 선발 전형이나 연세대 학생부교과전형을 선호하게 돼 해당 전형 경쟁률이 상승할 수 있다”라며 “더욱 우수한 지원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메이저 의대 입시는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반면 비수도권 의대의 경우, 기존 2023명에서 1639명이 추가로 증원되는 만큼 합격선이 하향될 가능성이 크다. 이 관계자는 “특히 지역인재 전형에서는 합격 장벽이 낮아지는 결과를 피하기 힘들 것”이라며 “증원 규모가 제한되는 일반학생 전형은 지원자 유입이 증원 규모를 상쇄해 합격선이 기존과 거의 동일하게 유지될 수 있지만, 지역인재 전형에서는 증원 규모가 더욱 크고 지원자 내신 산포도 또한 일반학생 전형에서보다 지역인재 전형이 크다는 점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의대 편입학 여석이 확대될 가능성도 예측된다. 서울권 한 대학 관계자는 “최근 4년간 의학학 계열 편입 선발 추이는 150여명에서 올해 350여명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인다”라며 “의대 증원에 따라 약대·의대생들이 보다 상위권으로 이동하면서 중도 탈락이 대거 발생하고 이에 따른 지방권 의대 편입 기회는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현진 기자 ihj@

“메타, 사칭광고에 구글처럼 강력 조치를”

>> 1면 '석달새 1200억 피해'서 계속

또 AI(인공지능) 모델 '제미나이'를 활용해 사칭 관련 정보를 색출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유명인 동의' 전제로 얼굴정보를 수집해 사칭광고 방지 기술을 시험 중이다.

메타도 최근 한국 뉴스를 통해 “2023년 4분기에만 사칭 광고 계정을

포함해 총 6억9100만개의 가짜 계정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 삭제됐다”며 “이들 중 99.2%는 이용자로부터 신고가 접수되기 전 선제적으로 조치가 취해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점점 더 교묘해지는 수법을 학습해 유명인 사칭 광고에 대한 추가 탐지 모델을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유사모 측은 “회견은 사실상 사칭 광고의 온상 격인 메타 플랫폼의 소극적·미온적인 태도가 촉발했던 것”이라며 “사칭 광고 시 경고 없이 계정을 영구 정지하겠다고 발표한 구글처럼 강력한 조치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업계도 정부와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의 적극적인 공조가 이뤄지지 않으면 피해는 지속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사칭 광고를 선별하는 데 애매한 부

분이 있고, 인력 및 기술적인 한계도 있기 때문. 여기에 불법 광고사들은 플랫폼 단속을 피하기 위해 ‘후회 교육’까지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담당 수사관은 “사기범죄는 주로 카카오톡을 통해 이뤄지지만, 이는 해외 IP를 통해 만든 계정일 뿐만 아니라 대포통장을 통해 범행이 이뤄져 실명을 알기 어렵다”며 “애초에 메타 등 글로벌 빅테크 업체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광고를 차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구남경 기자 koogija_tea@

4대 금융그룹 분기 실적발표 임박

H지수 손실 반영... “ELS 익스포저 따라 순이익 크게 줄 것”

(위험노출액)

금융권, 실적하락 전망 우세
합산 순이익 3조9815억 추정
전년 동기대비 9000억 감소

KB·신한·하나·우리금융 등 4대 금융그룹이 이번주 1분기 실적발표를 앞둔 가운데 대부분 전년에 비해 부진한 성적표가 예상된다.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배상으로 순이익이 9000억원가량 감소할 전망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25일 KB금융을 시작으로 26일 신한·하나·우리금융이 1분기 실적을 발표한다.

올해 1분기 4대금융의 당기순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크게 줄어든 전망이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는 4대금융의 1분기 순이익을 3조9815억원으로 추정했다. 1년전과 비교해 9200억원(18.77%)감소한 수준이다. 영업이익은 6조3347억원으로 같은 기간(6조6520억원)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지만, 홍콩 H지수 ELS 관련 손실이 1분기 실적에 반영되면서 순이익이 대폭 감소한 것이다.

나민욱 DS투자증권 연구원은 “홍콩



KB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H지수 ELS와 관련해 주요 은행들이 자율조정 절차에 돌입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손실은 1분기 중 대부분 반영될 것”이라며 “ELS 익스포저(위험노출액)를 보유한 은행을 중심으로 순이익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금융그룹별로 살펴보면 KB금융은 영업이익이 2조555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6% 감소하고, 당기순이익은 1조200억원으로 31.8% 줄어드는 것으로 집계됐다. 9000억원에 달하는 홍콩 H지수 ELS 배상액을 적용한 결과다.

다만 시장전문가들은 ELS 배상액이 선 반영된 점을 감안하면 무난한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준섭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전분기보다 순이자마진(NIM)은 3bp(1bp=0.01%포인트) 개선되고, 대출성장률도 0.8%를 기록할 것”이라며 “순이자이익은 3조38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1.3%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신한금융의 영업이익은 1조8764억원으로 1년전과 비교해 6.8%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다만 순이익은 ELS 배상액 3000억원이 반영되며 같은 기간

10.8% 감소한 1조2377억원을 기록할 전망이다.

김도하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해보다 상대적으로 기업대출이 늘며 영업이익이 늘었고, 1분기 순이자마진 또한 1bp 상승했다”며 비교적 양호한 실적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나금융의 순이익은 906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8% 감소한 것으로 추정됐다. ELS 배상액인 2000억원과 700억원 내외의 외화환산손실이 발생한 결과다. 외화환산손실은 외화로 가지고 있는 자산이나 부채를 원화로 환

산할 때 발생하는 회계상의 이익과 손실을 말한다. 하나금융은 지난 2015년 외환은행과 합병하면서 외화자산·부채가 많은 상태다. 환율이 상승하며 외환부채의 평가액이 외화자산보다 늘어나 환차손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금융권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10원 오를 때마다 200억원 정도의 회계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본다.

최정욱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연구원은 “ELS 배상액이 상대적으로 적고, 증권이 흑자전환하고, 유가증권 관련이익 등으로 9100억원 내외의 순이익을 시현하는데는 크게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금융도 ELS 배상액이 100억원 이하이지만, 200억원가량의 환차손이 발생하면서 순이익이 8176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대비 10.5% 감소한 수준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홍콩 H지수 ELS 배상이 진행되고,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서 환차손으로 인한 1분기 실적하락은 예상했다”며 “조달금리 부담이 낮아지고 기업대출을 중심으로 원화대출이 늘어 1분기 이익은 양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누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시민대표단, 절반 이상 ‘소득보장론’ 찬성”

연금특위 기자회견

최종 설문결과 발표... 소득보장론 우세
“연금개혁 시대적 과제, 지지 해주시길”

국민연금 개혁안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설문조사 결과 보험료를 더 내고 더 많이 받는 ‘소득보장론’에 대한 찬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해당 설문 결과를 보고 받고 연금개혁안을 내놓을 예정이지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 개혁안 처리까지 이룰지는 미지수다.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는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금개혁 공론화 최종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연금개혁 공론화 시민대표단 492명을 대상으로 한 최종(3차) 설문조사 결과, 소득대체율과 보험료를 다루는 모수개혁 설문에서 소득보장론에 찬성하는 비율이 56.0%로, 재정안정론에 찬성하는 42.6%보다 오차범위 밖으로 높았다.

이번 설문조사는 국민의 성별·연령·지역 비율을 대표하는 시민대표단 492명을 대상으로 연금개혁에 대한 학습 전 1차 조사를 실시하고 공론화 숙의토론회 전 2차 조사를 실시한 뒤 공론화 숙의토론회 후 3차 최종 조사를 실시해 나온 결과다. 3차 신뢰조사는 95% 신뢰수준에서 오차범위는 ±4.4%포인트다.

첫번째 의제로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의 비율을 물었다. 소득대체율은 생애평균소득에 대해 얼마만큼 연금으로 대체되는지를 뜻하고, 보험료율은 소득에서 보험료로 내는 비율을 뜻한다. 3차 최종조사에선 2안(소득대체율



김상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공론화위원회 숙의토론회 주요 결과 및 시민대표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시스

40%, 보험료율 12%)보다 1안(소득대체율 50%, 보험료율 13%)이 더 높게 나타났다. 1차에서 3차 조사로 진행될수록 1안에 찬성하는 비율이 36.9%, 50.8%, 56.0%로 높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1차 조사때는 2안이 의미하는 재정안정론이 더 높은 찬성을 보였지만, 3차 조사에선 소득보장론을 뜻하는 1안이 2안과 13.4%포인트의 격차를 보였다.

의무가입 상한에 관해서, 의무가입 상한연령을 64세로 인상하자는 응답은 80.4%, 현행 60세를 유지하자는 응답은 17.7%로 나타났다.

사각지대 해소방안에 대해선 출산크레딧과 군복무 크레딧을 확대하는 방안이 가장 많이 선택됐다.

65세 이상 시민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구조를 현행처럼 유지하자는 응답은 52.3%, 기초연금의 수급범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자는 응답은 45.7%로 오차범위 안으로 나타났다.

지역연금과 관련해서 시민대표단의 68.3%는 국민연금과 지역연금의 형평

성 제고와 관련해 정부와 당사자가 균형있게 참여하는 대화기구를 즉각 구성해서 개선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정도에 맞춰 지역연금의 보험료율을 조정한다는 방안에 시민대표단의 69.5%가 동의했고, 지역연금의 연금급여액을 일정기간 동결하는 방안에 대해선 시민대표단의 63.3%가 동의했다.

공적연금 세대 간 형평성 제고 방안에 관해서 국민연금 기금을 청년주택, 공공어린이집 및 노인시설에 투자한다는 대안에 대해 시민대표단의 57.5%가 동의했고,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에 대한 의무를 국민연금법에 명시한다는 대안은 92.1%가 동의했다.

사전적 국고투입을 통해 미래 세대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한다는 대안에 대해선 시민대표단의 80.5%가 동의했고, 국민연금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를 위해 거버넌스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한다는 대안에 대해 시민대표단의 91.6%가 동의했다.

퇴직급여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선 시민대표단의 46.4%가 퇴직금(퇴직연금) 중 일부를 별도 기금으로 적립하고 운용해 연금으로 받는 준공적연금으로 전환한다는 대안이 적절하다고 보았다.

김상균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은 “지금부터는 국회의 시간이라고 생각한다. 아무쪼록 여기 계신 언론인 여러분과 지켜보실 국민 여러분 시대적 과제인 연금개혁이 이번 국회 임기 내에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많은 지지와 응원을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라고 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

1분기 화장품류 수출 23억 달러 ‘역대 최대’

전년동기대비 22% ↑... 美 시장 주요

K-뷰티 수출이 고전중인 중국 시장을 대신해 미국에서 급성장하며 돌파구를 찾고 있다. 정부는 미국 등 주요 시장 수출을 늘리는 한편, 중동, 아세안 등 수출 다변화에 총력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화장품류 수출은 23억달러로 동기간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최근 1분기 화장품 수출액은 2021년 22억2000만 달러에서 2022년과 2023년 18억달러선까지 감소했다가 올해 전년 동기 대비 21.7% 상승하며 반등했다.

관세청 자료를 보면, 1분기 대 중국 수출이 6억1200만달러로 가장 많지만, 전년 동기 대비 4.6% 감소했다. 화장품류 대 중국 수출은 2021년 전년 동기 대비 28.2% 증가한 48억8500만달러로 최고를 찍었으나, 이후 2022년과 2023년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감소를 기록한데 이어 3년 연속 감소가 예상된다.

반대로 대 미국 수출은 3억78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8.7% 급증했다. 화장품류 대 미국 수출은 2020년 6억4600만달러 수준에서 지난해 전년 동기 대비 44.6% 증가한 12억2200만달러로 증가한데 이어 2년 연속 대폭 증가가 예상된다. 이밖에 1분기 화장품류 수출은 일본(2억4100만달러, +21.7%), 베트남(1억4500만달러, +24.4%), 홍콩(1억2200만달러, +12.3%) 순이다. 특히, 화장품류 수출국 상위 5개국 외 170개국 수출은 8억4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6.6% 증가했다.

산업부는 K-뷰티 수출이 미국과 유럽 등 주요 시장으로 증가하는 한편, 중동, 아세안 등으로 다변화 전략을 모색

하고 있다고 보고 총력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미주, 중동, 아세안 등 신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온라인 유통 플랫폼 입점을 지원하고, 유수의 뷰티 해외 전시회 참가, 수출상담회 및 무역사절단 지원, 한류연계 마케팅 지원을 통해 기업들의 글로벌화를 적극 지원한다.

특히 올해 K-뷰티 분야에 1조원 이상의 무역보험을 공급하고 중견·중소기업 대상 수출보험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외 소비자 거점무역관 기능을 강화하고, 해외인증 비용 및 컨설팅 지원,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를 활용한 무역장벽 해소 등을 통해 해외 신 시장 진출이 가속화 될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한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작년 10월 이후 6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K-뷰티 화장품 수출은 올해 1분기 역대 최고치를 달성하는 등 괄목할만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며 “수출 7000억달러 목표 달성을 위해 K-뷰티 산업도 앞장설 수 있도록 정부도 총력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 본부장은 이날 아모레퍼시픽 본사를 방문해 K-뷰티 수출 현황을 점검하고, 우리나라 뷰티 업계의 수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아모레퍼시픽은 화장품 업계 최초의 수출기업으로 최근 라네즈 브랜드를 필두로 아마존 등 글로벌 이커머스 등에서 입지를 확대하며 미국 시장에서 수출 성과를 내고 있다. 또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한 소비자 맞춤형 파운데이션 제작 등 신기술을 접목한 뷰티 제품도 출시하며 소비자 관심을 끌고 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장인화 “포스코, 철강·이차전지 경쟁력 강화… 초일류 도약”

(포스코그룹 회장)

7대 미래혁신 과제 발표

철강 원가절감·이차전지 투자 지속
신사업 미래소재 분야 특화 발굴·육성
2026년까지 저탄소생산 전환 등 실행

포스코그룹이 신뢰받는 초일류 혁신 기업으로 도약을 위해 7대 미래혁신 과제를 확정했다.

22일 포스코그룹에 따르면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은 지난 19일 열린 포스코홀딩스 이사회 전략세션에서 “7대 미래혁신 과제를 통해 핵심 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영체제 전반을 혁신해 초일류 기업 도약을 위한 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미래혁신TF’를 가동해 그룹 경영 현황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고, 관련 부서의 의견 청취 및 수차례에 걸친 토론회를 통해 그룹이 당면한 주요 현안의 혁신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함이다.

구체적으로 7대 미래혁신 과제는 ▲철강경쟁력 재건 ▲이차전지소재 시장 가치에 부합하는 본원경쟁력 쟁취 및 혁신기술 선점 ▲사업회사 책임경영체



3월 21일 포스코그룹 제10대 회장으로 선임된 장인화 회장이 기자간담회에서 소통하고 있다.

제 확립, 신사업 발굴체계 다양화 ▲공정·투명한 거버넌스의 혁신 ▲임직원 윤리의식 제고 및 준법경영 강화 ▲원칙에 기반한 기업 책임 이행 ▲조직·인사혁신 및 수평적 조직문화 구축 등으로 구성된다.

먼저 비즈니스 측면에서 철강은 초격차 제조 경쟁력을 확보하고, 이차

전지소재는 미래 성장 가치가 높은 우량 자산에 대한 적극적 투자를 이어간다.

철강은 불확실한 경영 여건을 타개하기 위해 원가의 구조적 혁신을 추진하고 수익성 측면에서 철강 설비를 효율화해 매년 1조원 이상의 원가 절감을 달성한다는 목표다.

또 전기로를 활용하고 고급강 생산기술 개발 및 수소환원제철기술의 단계별 확대 등 저탄소 생산체제로의 전환을 실행하면서 프리미엄 제품 중심의 판매 포트폴리오 운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차전지소재는 리튬, 니켈 등 올해 본격 양산에 들어가는 이차전지소재 핵심 원료 공장을 조기에 안정화 시킨다는 목표다. 지난해 말 준공한 광석리튬 기반의 이차전지용 수산화리튬공장인 포스코필라리튬솔루션은 이미 상업 생산을 개시해 안정적인 램프업을 진행 중이며, 연산 2만 5000톤 규모의 아르헨티나 염호리튬 1단계 공장은 올 하반기 양산에 들어간다. 이와 더불어 리튬 염호, 광산과 같은 우량자원 투자도 나서 리튬메탈염금재 등 차세대 소재의 상업화를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핵심사업 이외의 일부 그룹 사업은 구조개편을 하고, 신사업은 미래소재 분야에 특화해 발굴, 육성한다. 특히 3년 내 유망 선도기업에 대한 M&A도 추진한다.

기업문화와 경영체제의 혁신도 가속

화한다. 성과 우수자 발탁 승진 확대 등 능력 기반의 인사를 시행하고, CEO 100일 현장동행 등 소통을 확대한다. 경영층 솔선수범의 일환으로 임원 급여는 최대 20% 반납하고, 주식보상 제도 폐지를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그룹 경영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지주회사 조직개편을 단행했고, 복장 자율화, 직급 호칭 개편 등 각종 제도의 개선과 지사·보고·회의 등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경영체제 측면에서는 거버넌스개선 TF 운영 등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CEO·사외이사 선임 프로세스를 갖춘다. 또 포스코클린위원회 신설 및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춘 신(新)윤리경영을 통해 임직원의 윤리경영 내재화를 적극 지원한다.

포스코그룹은 우선 실행 가능한 과제는 즉시 실천으로 추진하고, 저탄소 생산체제로의 전환, M&A 등 대형 과제는 2026년까지 순차적으로 실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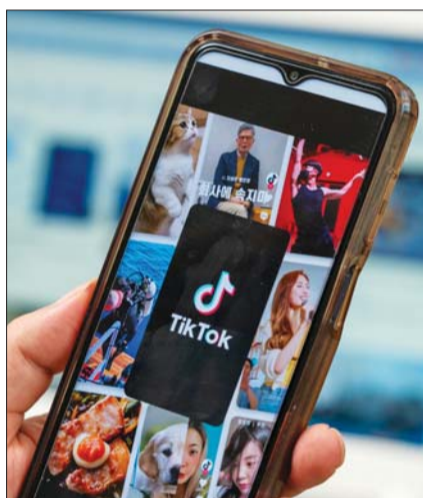
/양성문 기자 ysw@metroseoul.co.kr

틱톡·바이트댄스, 美시장 퇴출 위기… “표현의 자유 짓밟혀” 비판

美 하원서 지분 매각 강제 법안 통과
개인정보 수집·중국 정부 원조 의혹
전 CEO “어떤 혐의도 없다” 주장
중 정부 “자국의 기업에 매각 금지”

틱톡을 향한 미국의 공습이 날로 거세지고 있다. 틱톡 내 설치된 백도어(Back Door·비인가 시스템 접근을 하는 악성코드)가 미국 시민의 개인 정보를 불법 탈취하고 이를 중국 정부에 전달함으로써 ‘스파이풍선(Spyballoon)’ 역할을 한다는 주장이다. 틱톡과 중국 정부 측은 이를 대(對)중국 견제이자 우량 기업 탈취 시도라고 반박하고 있다.

틱톡 모회사 바이트댄스(ByteDance)가 21일(현지시간) 미국에 낸 성명을 통해 “미 하원이 중요한 대외·인도적 지원을 명분으로 미국인 1억 7000만명의 표현의 자유를 짓밟는 법안을 다시 강행한 것은 유감스럽다”며 “법안 서명 단



계에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미국 하원이 지난달 통과시킨 틱톡 금지법 일부를 수정한 데 따른

조치다. 수정된 부분은 바이트댄스가 틱톡 지분 매각 기한을 90일 연장할 영역이다. 기존 법안은 270일 내 매각을 강제했다.

외신은 법안의 상원 통과를 유력하게 보고 있다. 미국 하원은 바이트댄스의 앱 소유권 지분 매각 법안을 앞서 통과시킨 우크라이나-이스라엘 지원 패키지 법안과 연결시켰다. 패키지 법안은 중국의 미국 내 계좌를 통한 이란 원유 구입을 막음으로써 간접적인 이란 지원을 막는 내용을 포함한다.

틱톡 금지에 따른 파장은 커지고 있다. 중국 정부 측은 즉각 미국 기업인 왓츠앱 등의 퇴출에 승인했으며 “틱톡을 중국 외 기업에 팔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의 보호주의가 자국(미국)의 중요한 정신을 오히려 침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미국 내 IT 관계자들도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바이트댄스는 대규모 로비할

동과 함께 미국 내 앱 퇴출을 막기 위해 이용자 정보 접근을 통한 개인화 한 피드 제공 등 일반적인 빅테크 플랫폼 기업이 활용한 기술까지 제외하고 주요 기밀 알고리즘을 제외한 코드를 공개했다. 블룸버그와의 인터뷰를 진행한 IT 관계자는 “팬데믹 기간 중 유튜브와 메타는 틱톡의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인 숏폼을 그대로 복제해 숏츠와 릴스를 만들어냈다”며 “이번 사태는 인종차별적”이라고 지적했다.

틱톡의 전 CEO인 케빈 메이어(Kevin A. Mayer)는 “틱톡은 어디까지나 독립적인 회사”라며 “내가 아는 한, 중국 정부는 물론 타국이 정부와도 관계가 없다. 이번 사태는 옳은 일이 아니며 미디어와 수정헌법 1조(자유) 또한 위반한다”고 지적했다.

미국 의회 내에서도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로 칸나 민주당 하원의원은 ABC 뉴스를 통해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이

반에 통과한 법안이 전혀 지켜지지 못하고 있으며 법원은 틱톡이 법률적 대응에 나섰을 때 정부를 지지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상원 정보위 원장 마크 워너 민주당 의원은 “많은 젊은이가 뉴스를 보기 위해 틱톡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는 틱톡이 새로운 선전 도구로써의 가능성을 보여준다”며 “중국 공산당이 미국인 1억 7천만명의 개인 정보를 긁어올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한다”는 것은 국가 안보에 위협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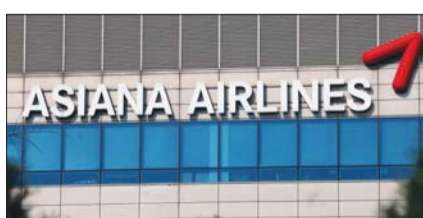
한국 내 IT 업계 관계자들은 당장 한국에 미치는 문제는 없을 것으로 전망한다. IT 업계 관계자는 “미국 내에서 틱톡을 금지하는 것은 한국과는 전혀 별개의 일”이라면서 “틱톡의 법정 싸움이 시작 되면 기한은 길어질 수밖에 없고 결국 패소한다고 해도 매각에는 긴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서현 기자 seoh@

1% 간극에 난항… 아시아나 조종사노조, 임금협상 결렬 선언

26일~내달 3일까지 쟁의행위 투표
노조측, 기본급 8.5%·기타 수당 ↑
사측, 연 7.5%·비행 수당 인상 제시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동조합이 임금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쟁의행위 돌입을 위한 수순에 들어간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 조종사노조는 지난 5일 회사와의 2023년 임금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노조 측은 연 8.5%의 기본급 인상 및 기타 수당 인상을 요구했으나 사측에서는 연 7.5%의 기본급 인상과 비행 수당 인상을 제시하



서울 강서구 아시아나항공 본사 모습. /뉴시스

며 결렬됐다.

아시아나 조종사노조 측은 “국내 LCC들도 조종사 임금을 10% 가량 인상한 바 있다”며 “지난해 4007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한 회사는 더 높은 인상을 수용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처럼 노사간 갈등이 확대되면서 올해도 파업의 전운이 감돌고 있다. 우선 아시아나 조종사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하기 위해 오는 26일부터 5월 3일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할 방침이다. 투표 대상은 노조원 총 1123명으로 결과는 투표 마지막날 오후에 발표될 예정이다. 찬반 투표에서 과반 찬성이 나오면 파업 등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 임금협상 갈등으로 파업을 진행한 아시아나 조종사노조가 쟁의권을

확보할 경우 파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아시아나 조종사노동조합이 지난해 7월 16일 쟁의행위를 진행하면서 당시 인천에서 베트남 호찌민을 오가는 국제선 왕복 항공편이 결항된 바 있다.

문제는 아시아나 조종사노조가 쟁의권을 확보하고 파업에 돌입하는 시점이 6, 7월로 예상되면서 현실화될 경우 여름 성수기 이용객들의 불편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005년 노조 파업으로 2328편의 운항 차질, 여객 1304억원, 화물 966억원 등

모두 2270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다만 항공운수사업이 2006년 12월부터 필수공익사업으로 적용되면서 노조가 전면 파업에 나서도 필수인력은 유지해야 한다는 점에서 최악은 피할 것으로 보인다. 항공사의 경우 필수유지 업무 비율에 따라 파업 참여 대신 국제선 80%, 제주 노선 70%, 국내선 50% 이상 필수조종인력을 투입해야 한다.

앞서 노조는 지난해에도 2022년 임금인상률을 두고 사측과 대립한 끝에 파업 목전까지 갔다가 기본급·비행 수당 2.5% 인상 등에 합의하면서 갈등을 봉합한 바 있다. /양성문 기자



BUILD UP

빌드업은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빌드업은 목표까지 함께 가는 것입니다
빌드업은 고객과 비즈니스 파트너, 사회가
서로 신뢰하는 겁니다

새로운 소재로 진화하는 반도체와 배터리
디지털과 리사이클링이 결합된 친환경 기술
시로 더 가까워진 에너지 트랜지션까지

**SK의 솔루션으로, SK의 팀플레이로
내일을 빌드업 합니다**



尹-李 '영수회담' 조율 중

민주당 “13兆 민생회복지원금, 尹 결심만 있다면 가능”

이재명 “尹 만나 민심 전달할 것 정치, 국민 먹고사는 문제 해결해야”
尹, 현금성 지원 부정적 인식 드러내 추진하는 건전재정 기조에 안 맞아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만나는 ‘영수회담’이 조율 중인 가운데,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민주당은 전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 고(故) 해병대 채상병 특검 등을 논의 테이블에 올릴 예정이어서 대통령실이 이를 받아들일지 주목된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꾸준히 제1야당 대표와의 영수회담을 제안했으나 성사되지 않았다. 다만, 제22대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를 당하면서 민심이 출렁이자 윤 대통령은 지난 19일 이 대표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만남을 제안했고, 이 대표는 긍정하며 영수회담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영수회담 제안 소식에 환영의 뜻을 전하며 “대통령을 만나 이번 총선에 나타난 민심을 가감 없이 전달하도록 하겠다. 국민께서는 ‘살기 어렵다, 민생을 살려라’라고 준엄하게 명령하셨다. 정치가 국민의 먹고사

는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영수회담에서 민주당의 총선 공약인 민생회복지원금 추진을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총선을 앞두고 고물가와 고유가로 고통받는 서민 경제 상황을 언급하면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통해 13조원을 확보하면 민생회복지원금을 줄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도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전국민 25만원 지급 문제는 대통령의 결심만 있다면 가능한 일”이라며 “긴급민생자금 13조원 정도는 민생경기 부양 차원에서 못할 일도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건전 재정 기조에 전혀 맞지 않는 정책이라는 점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은 나라의 미래를 망치는 것이고 경제적 포퓰리즘은 정치적 집단주의와 전체주의와 상통하는 것”이라며 현금성 지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냈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중 10번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하면서 150조원의

추가 예산을 집행했다. 신종코로나19 바이러스(코로나19)로 인한 복지 사업 지출이 많았으나, 약 40조원의 추가경정예산을 쓴 박근혜 정부의 4배 가까운 수치였다. 나라빛도 문재인 정부 5년간 660조원에서 1000조원을 돌파하며 부채 증가 속도가 급격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인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를 두고 방만한 재정운동을 했으며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했던 것인데, 최소한 13조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한 민주당의 민생회복지원금은 받기에 당혹스럽운 안건이 될 수 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영수회담의 근본 기조는 민생을 살리는 회담이 돼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며 “고물가와 고금리 한계에 부딪힌 분들이 많다. 정치권이 합심해서 민생을 회복하는데 주안점을 뒀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생 경제 분야 이외에도 고(故) 해병대 채상병 특검도 주요 논의 안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채상병 사건의 책임자 경찰 이첩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외압 의혹이 있었던 만큼, 윤 대통령에게 까지 수사 범위가 미칠 수 있는 특검에 대해 윤 대통령이 결단을 내릴 수 있을 지도 미지수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국회 부의장 등 역임... 정무적 경륜 갖춰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尹과 교류했지만 친윤 계파색 열어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임명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국회 부의장, 국회 사무총장, 청와대 정무수석 등을 역임해 풍부한 정무적 경륜을 갖춘 인사라는 평가를 받는다.

윤 대통령과 가깝게 교류해왔지만 비교적 ‘친윤’ 계파색이 없고, 언론인 출신으로 여야를 막론하고 친화력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정진석 신임 비서실장은 충남에서 5선을 지낸 기자 출신 정치인으로, 윤 대통령의 부친 고향과 같은 공주 출신이어서 동갑내기인 윤 대통령과 막역한 사이로 알려졌다.

2021년 6월 윤 대통령(당시 전 검찰총장)이 정치 참여를 처음 밝히는 자리부터 참석해 대선 때는 충남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았다. 당에서 2021년 4·7 재보궐선거와 2022년 6·1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장을 했고 2022년 9월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았다.

그는 6선 의원·내무부 장관·충남지사를 역임한 고(故) 정석모씨의 아들이다. 한국일보에 입사해 15년간 기자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프로필

- 1960년 충남 공주출생
- 성동고등학교-고려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 한국일보 논설위원
- 16·17·18·20·21대 국회의원
- 청와대 정무수석
- 국회 사무총장
- 새누리당 원내대표
- 21대 국회 후반기 부의장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사진뉴스

근무했다.

김종필(JP) 전 국무총리의 특보로 자유민주연합(자민련)에 입당해 2000년 16대 총선에서 국회에 입성했다.

3선 의원이었던 2010년 이명박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에 임명됐다. ‘JP계’라는 특성을 살려 갈등이 이어지던 친이계와 친박계 사이 가교 역할을 성공적으로 한 것으로 전해진다. /뉴스

“2030년 ‘과학기술 글로벌 3대國’으로 도약”

尹,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 참석 연구자 격려, 유공자에 훈·포장 수여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3대 게임체인저 기술인 AI(인공지능)반도체, 첨단바이오, 퀀텀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 및 동맹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통해 대한민국이 2030년에는 ‘과학기술 글로벌 3대 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육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 과천 국립과천과학관에서 개최된 ‘2024년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에 참석해 연구자들을 격려하고 유공자들에게 훈·포장을 수여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은 1967년 과학기술처 출범일인 ‘과학의 날’(4월 21일)과 1884년 우정총국 설립일인 ‘정보통신의 날’(4월 22일)을 기념하는 날로, 지난 2013년 미래창조과학부 출범과 함께 두개의 기념식을 합동으로 개최되고 있다. 행사가 열린 국립과천과학관은 수도권 최대의 국립과학관으로, 미래 과학 꿈나무들이 체험과 교육을 통해 과학기술인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인력 양성의 산실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대통령이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에 참석한 것은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참석 이후 8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전 세계는 기술주권 확보와 미래시장 주도를 위해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기도 과천시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열린 2024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던 중 과학유공자를 소개하며 박수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고 짚었다.

이어 “대한민국이 첨단 과학기술 분야의 ‘퍼스트 무버’가 될 수 있도록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연구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연구자들이 제때 연구에 돌입할 수 있도록 R&D(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를 획기적으로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국가 과학기술·정보통신 유공자 8명에게 훈·포장과 대통령 표창을 친수하며 축하와 격려의 뜻을 전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최첨단 고분자인 폴리이미드 수지 연구의 권위자로 168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이미혜 한국화학연구원 명예연구원이 과학기술 훈장 창조장(1등급)을 받았다.

망이용대가, 망종립성, 규제샌드박스 등 ICT 정책 수립 전반에 적극 참여해온 이희정 고려대 교수는 황조근정훈장(2등급)을 수훈했다.

/서예진 기자 syj@

기업인 출신 재선의원, 가교 역할 ‘기대’

홍철호 정무수석 비서관

치킨 프랜차이즈 ‘굽네치킨’ 창업주

대통령실 신임 정무수석비서관에 내정된 홍철호(66) 전 의원은 치킨 프랜차이즈 ‘굽네치킨’ 창업주로, 경기도 김포에서 재선 의원을 지냈다. 기업인 특유의 합리적인 사고와 그가 보여준 원만한 여야 관계에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용산과 여의도의와 가교 역할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홍 의원은 경기도 김포에서 태어나 부평고등학교, 예산농업전문학교(현 공주대학교 축산과)를 졸업했다.

그는 젊은 시절 25년간 기업을 경영한 사업가다. 닭 가공 업체 크레치코의 최고경영자(CEO)로서 지앤푸드 CEO인 동생 홍철호 씨와 2005년 굽네치킨 사업을 시작, 전국적으로 성장시켰다.

김포상공회의소 부회장, 김포경찰서경찰발전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맡으며 대중과 소통했다.

2014년 7월 재보궐선거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김포시에 출마하며 정계에 본격 입문했다. 당시 홍 전 의원은 “성공한 CEO가 부자 김포를 만든다”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나서 제19대 국회에 입성했다. 이어 제20대 총선에서도 김포을 지역에서 내리 재선에 성공했다.

홍 전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인 2017년 새누리당을 탈당, 바른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프로필

- 1958년 경기김포출생
- 부평고등학교-예산농업전문학교축산과졸업
- 새누리당 김포시당원협의회 당협위원장
- (주)크레치코 회장
- 김포상공회의소 부회장
- 제19·20대 국회의원
-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비서실장
-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
-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장

/사진뉴스

정당에 입당해 유승민 당시 대선후보의 비서실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나 같은 해 다시 바른정당을 탈당, 자유한국당으로 복당했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비서실장을 역임했으며 이준석 당 대표 시절에도 전략기획부총장을 지냈다.

제 21·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경기 김포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다만 선거 과정에서 김포시의 서울 편입 논의를 이끌며 유의미한 성과를 거뒀다는 평이 나온다. /뉴스

Very Special
FRESH BERRY



논산딸기주스
 Nonsan
 Strawberry Juice
6,900

논산딸기 베리라떼
 Nonsan Strawberry
 Berry Latte
6,900

논산딸기
 바나나스노우
 Nonsan Strawberry
 Banana Snow
6,900



이륜차보험 가입률 52% 불과 보험료 할인 등 가입 확대해야

10년간 전체 교통사고 8.6% 감소
이륜차 사고 건수는 52.7% 증가
고위험 계약으로 보험료도 비싸
다양한 안전기술에 할인적용해야



지난 1월 서울 중구의 한 거리에 오토바이가 주차돼 있다. /뉴스시스

최근 10년간 교통사고 발생은 감소했지만 이륜차 관련 사고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륜차 보험 가입률이 자동차보험의 절반 수준에 그치면서 이륜차 관련 보험 가입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감소하는 추세지만 이륜차 사고는 증가하고 있다. 이륜차는 사고 발생 시 자동차에 비해 탑승자 피해가 심각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이륜차 안전 제고를 위한 기술개발과 보험 적용'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전체 교통사고 건수는 지난 2013년 21만5354건에서 2022년 19만6836건으로 8.6% 감소했다. 국토교통부 자동차 등록 현황에 따르면 같은 기간 전체 등록 차량은 1940만대에서 2550만대로 31.5% 증가했음에도 사고 건수는 감소했다.

반면 이륜차 사고 건수는 1만433건(2013년)에서 1만5932건(2022년)으로 52.7% 급증했다. 같은 기간 이륜차 신

고 대수는 212만대에서 220만대로 3.8% 증가에 그치고 있어 신고 대수 대비 이륜차 사고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김규동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2022년 기준 국내 이륜차 사고의 도로 교통사고 건수 비중은 8.8%이나 사망자 비중은 16.7%에 이른다"며 "이륜차 사고 피해가 심각한 이유는 탑승자의 신체가 외부에 노출되어 있어 사고 발생 시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지기 쉽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고위험 계약으로 간주해 비싼 보험료는 이륜차 보험 가입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경우 이륜차 운행 특성 및 도로 사정에 적합한 기술개발과 안전대책 마련은 부족한 실정이다.

2023년 자동차보험(개인용·업무용 의무보험) 가입률이 96.6%인 것에 반해 이륜차보험 가입률은 52.1%에 불과하다. 이륜차보험의 자기신체손해 가입률은 6.6%, 자기차량손해 가입률은 0.2%에 그치고 있다.

최근 이륜차 관련 안전기술 개발 소식이 속속 들려오면서 보험 적용을 통해 이륜차 안전과 보험 가입 확대를 도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GPS와 조향장치 감지 기술을 이용해 이륜차의 사고상황 및 위험운전을 판단할 수 있는 이륜차 관제시스템의 효과가 확실적으로 입증된 바 있다. 또한 이륜차의 신호위반, 역주행, 인도·횡단보도 주행, 과속, 칼치기 등 다양한 안전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도 상용화 단계에 있다.

김규동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헬멧 착용 의무화 및 교통단속시스템 개선 외에는 이륜차 운행 특성 및 환경에 적합한 안전 기술 개발 및 보험 적용 사례가 부족하다"며 "이륜차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들에 보험료 할인을 적용함으로써 기술 적용을 확대하고 이륜차 안전운전을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시도가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대출금리 너무해"… 금융민원 7.7% ↑

금감원 작년 금융민원 상담 동향
은행관련 민원 1.5만건… 44% ↑
중도금대출 가산금리 불만 다수

지난해 고금리 기조가 꺾이지 않자 은행 대출과 관련한 금융민원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금융분야 민원 건수는 전년 대비 7.7%가량 증가했다.

금융감독원이 22일 발표한 '2023년 금융민원 및 상담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민원·상담 및 상숙인 전체 조치는 총 72만6061건으로 전년 72만590건 대비 0.8%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금융민원은 총 9만3842건으로 전년 8만7113건 대비 6729건 늘었다. 이외에 금융상담이 34만9190건으로 4.6% 감소했고, 상숙인 조치는 28만3029건으로 5.9% 늘었다.

금융민원 중 은행, 중소서민, 손해보험의 민원이 전년 대비 증가한 반면 생명보험, 금융투자 분야 민원은 줄었다. 권역별 비중은 보험이 53.0%로 가장 많았고, 중소서민 21.9%, 은행 16.7%, 금융투자 8.4% 순으로 민원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금융민원 가운데 은행 관련 민원은 지난해 1만5680건 접수됐

다. 이는 전년 대비 43.8%(4776건) 증가한 수치다. 이 중 ▲여신 관련 민원 비중이 49.4%로 가장 많았으며 ▲보이스피싱 9.6% ▲예·적금 8.9% ▲신용카드 4.2% ▲방카슈랑스·펀드 2.6% 순으로 민원 비중이 높았다.

금감원 측은 "높은 대출금리 관련 민원이 2343건 늘었는데 아파트 중도금대출 관련 가산금리 책정에 대한 불만 민원이 다수를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보이스피싱, 예·적금 부분의 민원은 각각 19.9%, 1.4% 줄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관련 피해 사례 안내 등 예방 활동을 강화하는데 주로 기인한다"고 덧붙였다.

생명보험 금융민원은 지난해 1만3529건 접수됐다. 전년 대비 19.1% 감소했다. 보험모집(2983건 감소) 등 대부분 유형에서 민원 접수가 줄었다. 금감원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신계약 건수 감소가 영향을 끼쳤다고 설명했다.

반면 손해보험 금융민원은 지난해 3만6238건을 기록해 전년 대비 3.1% 증가했다. 계약의 성립과 해지(268건 증가), 고지와 통지의무 위반(132건 증가) 관련 민원 유형이 증가했다.

/허정운 기자 zelkova@

포스코이앤씨, 장애인 특화 스마트홈 공개

'더샵' AI, IoT기반 스마트홈 활용
세대 내 홈네트워크 통해 일괄 관리
AIQ스마트케어로 응급시 즉시대응

포스코이앤씨가 시각·청각화기능을 활용한 '노인·장애인 특화 스마트홈 서비스'를 개발했다.

포스코이앤씨는 '장애인의 날'을 맞이해 '더샵'의 인공지능(AI), IoT기반 스마트홈 기술을 활용해 공동주택 내에서 자립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한 '장애인 및 노약자 특화 스마트홈 서비스'를 공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노인·장애인 특화 스마트홈 서비스'는 아이패드 또는 평소 주위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기술이지만, 세대 내 홈네트워크를 통해 일괄 관리가 되고 통합적으로 운영되는 장점이 있다.

리모콘 모양의 '원클릭 스마트스위



'원클릭 리모콘'. /포스코이앤씨

치'는 홈네트워크에서 자주 사용하는 기능을 디바이스에 모아 목에 걸 수 있게 고안돼 침대나 휠체어 이동시에도 가스잠금·난방·조명 등 가전기기 제어 가능하다.

'AIQ스마트케어'는 집에 혼자 있다가 갑자기 건강에 이상이 생겼을 경우 입주자의 현재 상태 등 응급상황 정보를 자동으로 가족 및 지인에게 전달해

급상황에 즉시 대응할 수 있다.

월패드와 달리 화면이 없는 넓은 화면도 시각 능력에 어려움을 겪는 입주자 상황에 맞게 음성지원은 물론, 점자 전용 화면과 패드를 적용함으로써 사용성을 증진시켰다. 청각능력이 약한 경우에도 방마다 설치된 '스마트스위치'가 방 문자 호출이나 비상상황시 문자와 함께 색상 점멸 기능으로 입주자에게 상황을 즉시 전달할 수 있다.

포스코이앤씨는 '더샵탕정인피니티 시티 2차' 등 올해 분양단지부터 사업 조건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다양한 고객들의 목소리에 진정성 있게 귀 기울여 스마트홈 상품 개발과 공급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 기자

'모임 체크카드' 5만원 이상 결제시 캐시백

카카오뱅크, 최대 3000원 랜덤지급

캐시백은 5만원 이상 결제시 3000원 또는 3000원의 캐시백을 랜덤 지급한다.

기존에 발급받았던 카카오뱅크 프렌즈 체크카드가 있다면 해지않아도 추가 발급이 가능하다. 결제 금액 및 결제처에 따라 두 카드중 하나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으며, 결제후에는 카드 이용내역 페이지에서 각 카드의 이용내역

을 분리해 확인할 수 있다.

카카오뱅크는 오는 5월 24일까지 모임체크카드를 신청한 고객을 대상으로 4억원 규모의 경품을 추첨 지급한다. 카카오뱅크 앱-이벤트페이지-모임체크카드를 신청하면 참여가능하며, 추첨을 통해 당첨된 1만3000개의 모임은 회식지원금 10만원(제세공과금 제외), 백화점 상품권, 치킨 교환권 등 다양한 경품을 받을 수 있다.

/나유리 기자 yul115@

내달 2.3만 세대 입주… 전월비 67% ↑

수도권 위주 새 아파트 입주 활발
6월에는 3만세대로 더 늘어날 듯

오는 5월 전국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2만2605세대로 전달 대비 약 67% 증가할 전망이다. 주춤했던 새 아파트 입주가 내달부터 다시 증가하며 6월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부동산 플랫폼업체 직방에 따르면 5월 전국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임대·연립 제외, 총가구수 30가구 이상 아파트 포함)은 45개 단지, 2만2605세대로 전달(1만3561세대)보다 67%(9044세대) 증가한다. 전년 동월(2만3803세대)과 비교하면 비슷한 수준이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에서 8238세대가 입주한다. 전월(3790세대)과 비교하면 1.7배(4448세대) 많은 물량이다. 경기 5675세대, 인천 2563세대가 입주하고 서울은 입주물량이 없다.

경기는 내달 도시별 물량 중 가장 많은 새 아파트가 입주한다. '광주탄벌서 히스타힐스1단지' (416세대), '동두천 중앙역엘크루더퍼스트' (168세대), '안산한신더휴' (377세대), '효성해링턴플레이스안성공도' (705세대), '덕계역진산블루시엘' (72세대), 'e편한세상옥정리더스가든' (938세대) 등 12곳의 단지가 입주한다.

인천은 '힐스테이트송도더스카이'

(1205세대), '영종국제도시서한이다움' (930세대) 등 4개 단지가 입주한다.

지방에선 1만4367세대가 입주한다. 내달 입주 물량은 수도권(36%)보다는 지방 비중(64%)이 높다. 특히, 경남 입주물량이 4640세대로 5월 도시별 입주물량 중 두 번째로 많다. 경남 지역 자체로는 지난 2019년 12월(1만858세대) 이후 가장 많은 물량이 입주한다. 그 외의 지역은 전남(2305세대), 부산(2221세대), 강원(1516세대), 대구(861세대) 순으로 입주물량이 공급된다.

주춤했던 새 아파트 입주가 5월부터 다시 증가하며 6월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6월 전국 입주예정물량은 총 3만990세대로 5월보다 37%(8385세대) 많고 올해 상반기 중 최대물량이다. 3·4분기에도 각각 3만14세대, 4만9686세대가 입주하는 등 지난해 동기와 비슷한 물량이 입주할 예정이다.

김은선 직방 빅데이터랩실 리드는 "수도권 위주로 새 아파트 입주가 활발히 진행될 예정이라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최근 신규 분양아파트의 분양가가 높아지자, 입주단지의 분양권 거리에 새아파트를 찾는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모습으로 당분간 입주장의 새아파트 관심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김대환 기자 kdh@



서울 아파트 단지의 모습.

/뉴스시스

현대차그룹, 147MW 태양광 구매... 美 친환경 생산 속도낸다

(메가와트)

매트릭스 리뉴어블스 PPA 체결
연간 14만t 탄소저감 효과 기대
조지아 신공장 재생에너지 가동

현대자동차그룹이 미국 조지아주에 건설 중인 전기차 전용 공장을 재생에너지로 운영한다. 이를 위해 147MW(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발전 전력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으로 현대차그룹 미국 사업장의 재생에너지 전환 속도도 빨라질 전망이다.

현대차그룹은 스페인 재생에너지 개발업체 매트릭스 리뉴어블스가 주도하는 신규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와 15년(2025~2040년) 장기 전력구매계약(PPA)을 최근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국내 기업이 미국 사업장의 재생에너지 사용을 위해 체결한 PPA 중 최대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조감도

/현대차

규모다.

이 계약에는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를 비롯해 현대모비스 북미전동화법인(MNAe)과 현대

제철 조지아법인(HSGA), 현대트랜시스 조지아P/T법인(HTGP) 등 4개사가 공동으로 참여했다.

이번 PPA는 기존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과의 공급 계약이 아니라 현대차그룹의 대규모 발주와 연계된 신규 태양광 발전시설로부터 재생에너지를 조달하는 방식이다. 글로벌 탄소 감축 측면에서 긍정적이라 평가다.

에너지 조달을 통해 기대되는 탄소저감 효과는 연간 약 14만톤으로 추산된다. 이는 준중형세단 8만4000여대가 1년간 배출하는 탄소를 흡수하는 것과 비슷한 규모다.

현대차그룹이 재생에너지를 공급 받게 될 태양광 프로젝트(스틸하우스 솔라)는 매트릭스 리뉴어블스가 미국 텍사스주 벨 카운티에 2025년 10월 상업운전을 목표로 개발 중인 210MW급 발전 시설이다.

현대차그룹은 총 발전용량 210MW의 70%인 147MW를 확보했다. 이를 통해 매년 378GWh(기가와트시)에 이르는 재

생에너지를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국내 약 10만 가구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

이번 계약으로 HMGMA는 완성차 공장 자체는 물론 공급망 차원에서도 재생에너지 사용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업계는 이번 계약이 재생에너지 전력 확보를 위한 현대차그룹 차원의 본격적인 행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본다. 그룹 차원에서 체결한 첫 계약이라, 개별 그룹사 계약보다 구매비용이 크게 절감된 것으로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이번 PPA를 시작으로 현대차그룹 미국 사업장의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투자와 계약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라며 "효과적인 재생에너지 확보를 위해 그룹사간 협력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삼성전자, 2024년형 '스마트모니터' 출시

삼성전자가 홈 라이프 활용성을 강화한 2024년형 스마트모니터 라인업을 출시

했다. 스마트모니터 신제품은 ▲인공지능(AI) 프로세서를 탑재한 UHD 해상도의 M8(32형, 최대 400니트) ▲UHD 해상도의 M7(43형·32형, 최대 300니트) ▲FHD 해상도의 M5(32형·27형, 최대 250니트)이다. 모델들이 M8 등 스마트모니터 신제품을 소개하고 있다. /삼성전자

SK가스, 울산 LNG터미널 시운전 성공

KET에 LNG선 입학... 쿨다운 마무리

올해 '신사업 본격 가동 원년'으로 삼은 SK가스의 액화천연가스(LNG)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SK가스는 한국석유공사와 함께 울산 북항에 건설하고 있는 '코리아에너지터미널(KET)'에 첫 번째 LNG가 도입됐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5일 약 6만5000톤 규모의 LNG를 실은 LNG 선박 'Grace Cosmos'호가 KET 2번 부두에 입항해 하역을 개시한 이후 쿨다운까지 무사히 마무리함으로써 KET의 LNG터미널 시운전 개시를 성공적으로 이뤄내는 동시에 울산항을 통한 LNG도입 시대가 개막했음을 알리게 됐다.

이번에 도입된 LNG는 SK가스의 발전 자회사인 UGPS(울산 GPS) 및 KE

T 시운전 등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UGPS는 LNG와 LPG를 모두 연료로 활용할 수 있는 세계 최초의 LNG·LPG 듀얼 발전소로 발전용량은 원전 1기와 맞먹는 1.2GW에 달한다.

특히 이번 KET의 LNG 터미널 사업 개시는 SK가스 LNG 밸류체인 중 저장 책임을 KET과 수요를 담당하고 있는 UGPS, 두 핵심 인프라가 처음 연결되었다는 데 더욱 의미가 있다.

윤병석 SK가스 대표는 "앞으로도 KET을 기반으로 그 동안 쌓아온 에너지 사업 역량을 집결시켜 LNG분야의 사업 확대를 가속화 할 것"이라며 "나아가 SK가스가 2030년 동북아 메이저 LNG 사업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SK온, 육아휴직 기간 확대

최대 2년... 저출산 극복 동참

SK온이 육아휴직 기간을 확대해 저출산 해소에 적극 동참하고 나섰다. 출산이나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에

기여하자는 취지다.

SK온은 육아휴직 기간을 최대 2년으로 연장하는 육아휴직 제도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SK온 구성원은 이번 제도 변경에 따라 '육아휴직 2년'을 추가로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차현정 기자

“환경보호 함께”... ‘자연사랑 그림축제’ 구름인파

삼양그룹-휴비스

그림경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2200명 방문... 환경 중요성 되새겨

삼양그룹과 휴비스가 지난 20일 전주 휴비스 공장에서 열린 '제26회 자연사랑 파란마을 그림축제'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22일 밝혔다.

1996년 시작된 자연사랑 파란마을 그림축제는 삼양그룹의 장학재단인 수당재단과 삼양사, 삼양화성, 화학 섬유소재 전문기업 휴비스가 공동 주최하고 환경부와 후원하는 환경 축제다.

이번 축제에는 전국의 유치원생(만 3~6세)과 초등학교 약 1100명이 참가했으며, 가족까지 포함하면 2200여명의 방문객이 몰리며 성황을 이뤘다.

올해 그림 경연대회는 ▲별종위기에 처한 동식물을 지키는 우리들의 노력 ▲100년 뒤에도 깨끗한 우리 동네, 미래 친환경 도시의 모습 등 2개의 주제가 제시됐다. 학생들은 원하는 주제 1개를 선택해 그림을 그리며 환경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그림대회에 참가한 고아라(온빛초등



제26회 자연사랑 파란마을 그림축제 참가자들이 각자 그린 그림을 들고 있다.

/삼양그룹

학교 3학년) 학생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그림축제에 참가했다. 그림을 그리며 환경의 중요성과 환경보호 방법을 고민해보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내년에도 축제가 열린다면 꼭 참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참가자와 가족들은 행사 당일 운영된 ▲커피박(커피찌꺼기)을 재활용한 화분·키링 만들기 ▲친환경 파우치 꾸미기 ▲환경 관련 그림 액자 만들기 등 다양한 환경 관련 프로그램에도 참여하며 축제를 즐겼다.

아울러 올해 처음 운영한 '에코 플리마켓'은 사전접수에서 150개팀이 몰려

조기 마감될 만큼 많은 관심을 모았다. 플리마켓 참가자들은 장난감, 도서, 옷, 신발 등 가정 내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을 가져와 저렴하게 판매하며 자원의 재활용을 실천했다.

삼양사배출권전주EP공장장은 "작년보다 더욱 풍성한 즐길 거리와 볼거리를 준비한 결과 예년보다 많은 방문객이 몰리며 성황을 이뤘다"며 "앞으로도 환경의 중요성을 알릴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풍성하게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그림 경연대회 수상자는 내달 17일 자연사랑 파란마을 그림축제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이다. /양성운 기자

SK지오센트릭, '생분해성 플라스틱' 신기술 개발

미생물 촉매기술 활용 중화제 저장

SK지오센트릭이 적은 비용으로 화학 부산물까지 최소화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생분해성 플라스틱(PLA) 원료 '젯산'을 만드는 신기술을 확보했다.

SK지오센트릭은 SK이노베이션 환경과학기술원 연구진이 젯산 생산을 위한 미생물 발효방법을 개발해 한국생물공학회로부터 우수기술연구상을 수상했다고 22일 밝혔다. SK지오센트릭의 지속 가능한 화학제품 개발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PLA는 매립 시 3~6개월 내 자연분해 돼 지속 가능한 소재로 쓰임새가 커

지고 있다. 분해에만 500년 이상 걸리는 석유화학 물질(에틸렌) 플라스틱을 대신해, 최근에는 카페의 일회용 포크, 농사용 비닐, 의료도구 등이 PLA 제품들로 대체되고 있다.

연구진은 산에 강한 특수 미생물을 선별하고, 독자적인 미생물 촉매기술을 활용해 중화제 사용량을 줄인 젯산 생산기술을 개발했다. 부산물 처리에 따른 환경부담과 처리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이 기술은 그간 미국 기업만 상업화에 성공했을 정도로 기술 장벽이 높았으나, 이번에 독자적인 방식으로 이를 구현해냈다.

SK지오센트릭은 이번 R&D 성과를

바탕으로 경제성을 갖춘 사업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각 국의 생분해 소재 지원책이 확대되는 가운데 농업, 운송, 의료, 포장 등 PLA의 쓰임새가 늘고 있어, 이번 성과가 향후 PLA 시장에서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SK지오센트릭 관계자는 "지난 한 세기 동안 인류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었던 플라스틱은 이제 환경의 지속성 또한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며 "이번 R&D 성과가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세계 PLA 시장에서 SK이노베이션 계열의 경쟁력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차량 인증부터 개발까지... BMW “韓 소비자 편의향상 집중”

R&D센터코리아, 청라로 확장 이전
韓 시장 위한 최적화 솔루션 개발
국내 스타트업 등 협력 강화 방침

지난해 한국인의 많은 사랑을 받은 BMW가 남다른 ‘한국사랑’을 이어간다.

BMW그룹은 전 세계에서 5번째로 구축한 국내 연구개발(R&D) 센터를 인천 청라국제도시로 확장 이전하면서 국내 소비자들의 편의성 향상에 집중한다. 이는 지난 2015년 인천 BMW 드라이빙 센터 내에 처음 개소한 R&D 센터의 기능을 확대한 것이다.

BMW그룹 코리아는 22일 오전 인천 청라국제도시에 ‘BMW그룹 R&D 센터 코리아’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BMW그룹 본사 경영진도 대거 참석했다. BMW그룹의 보드 멤버인 요헨 골러 고객·브랜드·세일즈 부회장, 다니엘 보트거 BMW그룹 완성차 연구개발 총괄 시니어 부사장, 한상윤 BMW그룹 코리아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고, 유정복 인천시장과 이용우 인천 서구를 국회의원 당선인 등 국내 정관계 인사들도 함께했다.

BMW그룹은 R&D 센터 구축을 위해 120억원을 투자했다. 요헨 골러 BMW 그룹 고객·브랜드·세일즈 부회장은 “한국에 새롭게 문을 연 R&D 센터 코리아가 앞으로 더욱 가치 있는 역할을 수행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한국은 지난해 그룹 내에서 5번째로 큰 중요한 시장인 만큼 한국 고객에게 더 좋은 제품과 서비스 제공을 위한 투자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새로운 R&D 센터는 국내에 출시할 BMW그룹 차량의 인증 및 제품 개발은 물론 국내 기업과의 협력을 위해 핵심 역할을 한다. 센터는 5296㎡ 부지에 연면적 2813㎡ 규모의 단층 건물로 들어섰다.



BMW 그룹 R&D 센터 코리아 차량 시험실.

/BMW그룹 코리아

이날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 BMW 그룹 R&D 센터 코리아는 총 50여 명의 직원들이 근무하며 국내에 수입되는 차량의 인증과 제품 개발은 물론 국내 스타트업과 대학, 연구시설과 협력을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이날 연구센터에서 처음 찾은 곳은 HIL 작업대다. 이곳에는 BMW와 MINI 차량에 적용된 디지털 계기반은 각각의 컴퓨터와 연결되어 있었다. 차량의 국내 출시전, 해당 국가에 특화된 기능, 성능, 신뢰성을 모의 시험하는 곳이다. 자동화된 수많은 테스트와 실제 환경을 연출한 환경에서의 시험을 통해 효율성을 향상하고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회사는 설명했다.

이어방문한 이노베이션 스페이스는 신차나 신기술에 대한 아이디어를 구상, 탐색하고 미래의 기술을 현실로 만드는 데 한국 내 파트너와의 협력 역할을 통해 프로토타입을 개발하거나 신기술을 BMW 방식으로 경험할 수 있게 한다.

또 고전압 충전 시험동에는 국내 전기차 소비자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한 충전 호환성 테스트를 진행한다. 인증 시험실에서는 국내 인증시험과 사후 관리에 필요한 작업등을 진행한다. 향후 3~4년 내에 해당 시설에서 자

체적으로 인증 테스트를 진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차량 시험실에서는 차량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가장 최신의, 최적의 상태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차량의 검사와 진단, 수리, 유지 보수 등을 진행한다.

다니엘 보트거 BMW 그룹 완성차 연구개발 총괄 시니어 부사장은 “BMW 그룹 R&D 센터 코리아는 국내 고객에게 제공되는 제품, 서비스 향상, 미래 기술 개발 등에 기여하는 역할과 더불어 BMW 그룹과 한국 파트너사들과의 협력, 국내 벤처 기술들의 해외 진출 등을 적극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BMW그룹 코리아는 한국 업체와 협력도 더 확대할 계획이다. BMW그룹은 지난해 한국 협력업체로부터 약 6조 5350억 원의 부품을 구매했다. BMW 그룹 코리아의 연간 매출액보다 많은 금액이다. 삼성SDI, 삼성디스플레이, LG그룹, 한국타이어, 세방전지 등 한국 기업으로부터 사들인 누적 금액은 2010년 이후 약 30조 7800억 원에 달한다. 국내 자동차 관련 기술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BMW 스타트업 캐리지도 신규 R&D 센터에 들어선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KG모빌리티, 3분기만에 ‘매출 1조’ 돌파

올해 1분기 수출물량 증가 실적 견인
KG모빌리티가 올해 1분기 수출 물량 증가에 힘입어 3분기 만에 매출 1조 원을 돌파했다.

KG모빌리티는 올해 1분기 매출액 1조 180억원, 영업이익 151억원을 기록했다고 22일 밝혔다. 매출액은 1년 전보다 7.7%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61.1% 증가했다. 순이익은 226.1% 늘어난 539억 원으로 집계됐다.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1분기 기준 2년 연속 흑자다.

1분기 판매는 2만 9326대로 지난해 1분기보다 16.5% 감소했다. 내수 판매가 46.5% 줄어든 1만 2212대에 그친 반

면 수출은 1만 7114대로 2014년 1분기(1만 9874대) 이후 10년 만에 가장 많았다. 특히 수출은 3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며 전년 동기 대비 39.2% 큰 폭으로 증가했다.

KG모빌리티는 지난달 튀르키예에 이어 뉴질랜드에 브랜드 첫 전기차인 토레스 EVX를 출시하는 등 최근 글로벌 판매 확대에 집중하고 있다.

KG모빌리티 관계자는 “수출 물량 증가로 매출액 1조 원 돌파와 함께 흑자 기조를 이어갔다”며 “글로벌 시장 공략 강화와 다양한 신모델 출시로 판매를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LX판토스, 헝가리에 대형 철도 터미널 개장

유럽 물류 거점 인프라 확보

LX판토스가 헝가리에 대형 철도 터미널을 개장하고 유럽사업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LX판토스는 19일(현지시간) 헝가리 부다페스트 머큐어 호텔(Mercure Hotel Magyar Kiraly)에서 ‘LX판토스 타타 터미널’ 개장식을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글로벌 배터리 최대 생산 허브 및 주요 철도 노선 인근에 물류 거점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부다페스트 남서쪽 65km에 위치한 LX판토스 타타 터미널은 총 면적 3만 6000㎡(축구장 5개 크기)로 2개의 철도 선로를 갖췄다. 이는 1450 TEU에 달하는 화물을 동시에 보관할 수 있는 면적으로, 하루 3회의 블록트레인 화물을 처리할 수 있다. ‘블록트레인(Block Train)’이란 기차처럼 출발지와 도착

지를 급행으로 연결하는 화물 전용 열차를 말한다. LX판토스는 오스트리아 철도청으로부터 10년간의 터미널 이용권을 인수했다. 또 이후 10년 이용연장 우선권도 확보했다.

헝가리는 중국, 폴란드, 미국에 이은 세계 4위 배터리 생산국이다. 부다페스트 인근을 중심으로 국내외 기업들의 시설 투자가 이어지며 유럽 내 전기차·배터리 산업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급증하는 물류 수요에 비해 기존 철도 터미널의 입지 문제 및 화물처리 능력 부족 등으로 기업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LX판토스는 이번 타타 터미널 개장으로 유럽 최대 배터리 생산 허브에 인접한 최적의 물류 거점 인프라를 확보함으로써 화물 처리 효율성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한편, 다양한 철도 상품 개발을 통해 유럽 물류 사업을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김승호 기자 bada@

LG, ‘AI 클로이 로봇’으로 배송사업 확대

물류 서비스 등 B2B 분야 사업 속도
배송 현황 등 로봇 관제 솔루션 제공

LG전자가 AI 로봇과 고도화된 로봇 관제 솔루션을 앞세워 배송, 물류 서비스 등 B2B 분야 사업 확대에 속도를 낸다.

LG전자는 이달부터 카카오톡이 대형 오피스·호텔·아파트·병원 등 건물 공간을 대상으로 처음 선보이는 로봇 배송 서비스 ‘브링(BRING)’에 AI 자율주행 배송 로봇 ‘양문형 LG 클로이 서브봇’을 공급한다고 22일 밝혔다.

LG전자가 AI 클로이 로봇과 배송 현황 및 로봇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관제 솔루션을 제공하고 카카오톡이 이에 자체 로봇 배송 서비스를 연동 후 운영한다.

양사는 앞서 2022년 ‘미래 모빌리티 서비스 혁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래 AI 로봇 배송 서비스 사업화를 위한 기술 협업을 지속해왔다.



LG전자 모델이 클로이 로봇의 서랍에 배송 물품을 적재하고 있다.

/LG전자

예를 들어 고객이 서비스 앱으로 건물 내 상점에 커피, 음식 등을 주문하면 직원은 물품을 로봇의 서랍에 넣고 보낸다. 서랍에는 배송 중 도난, 분실 등을 방지하는 보안·잠금장치가 있다. 로봇은 스스로 엘리베이터를 호출해 탑승하거나 자동문을 통과하며 최대 4곳까지 한 번에 물건을 배송한다.

양문형 LG 클로이 서브봇은 4칸의 양문형 서랍에 최대 30kg까지 물건을 적재할 수 있다. 보통 크기의 커피를 최대 32잔까지 탑재할 수 있는 넓은 공간 내부에는 위생을 고려해 향균 처리된 소재 및 탈취용 환기팬을 적용했다. 6개의 바퀴에는 독립 서스펜션을 적용해 음료를 신고도 건물 내 공간을 안정적으로 주행한다.

전면에 10.1인치 디스플레이를 탑재해 이동형 광고판 역할도 한다. 모바일 앱으로 손쉽게 콘텐츠를 올릴 수 있고, 건물 내 에스코트 기능과 음성 안내 등을 지원한다.

LG전자는 2030 미래 비전 달성을 위한 신사업 가운데 하나로 육성 중인 배송, 물류 등 상업용 로봇 사업의 역량 고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에는 AI 기반 자율주행 서비스로봇 스타트업 베어로보틱스에 6000만 달러(약 800억 원 규모)를 투자한 바 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SKT, 13개 언어 지원 AI 통역 솔루션 출시

‘트랜스 토크’ 선택... LLM 등 적용

SK텔레콤이 13개 언어를 지원하는 인공지능(AI) 통역 솔루션 ‘트랜스 토크’를 출시했다고 22일 밝혔다.

트랜스 토크 지원 언어는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아랍어, 스페인어 등 13개다.

외국인 관광객이 투명 스크린 앞에 설치된 마이크에 본인 언어로 질문하면 한국어로 번역된 문장이 안내 데스크 담당자 스크린에 표시된다. 이후 담당자가 한국어로 답변하면 이 내용이 실시간으로 관광객 언어로 변환돼 모니터에 나타난다.

트랜스 토크는 투명한 발광다이오드(LED) 디스플레이, 마이크 앞 소리만 전달해 주위 소음을 최대한 제거하

는 지향성 마이크, PC 등으로 구성된다. SK텔레콤은 AI 기반 통역 솔루션을 위해 K-AI 얼라이언스 멤버인 AI 전문기업 코난테크놀로지와 함께 음성 인식, 자연어 처리, 번역 엔진, 거대언어 모델(LLM) 등의 기능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트랜스 토크가 우선 설치된 곳은 서울 송파구 롯데 에비뉴엘 잠실점 1층과 롯데월드몰 지하 1층 안내데스크다.

롯데백화점은 외국인 쇼핑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SK텔레콤과 솔루션 도입 계약을 체결했다. SK텔레콤은 롯데백화점을 시작으로 통역 서비스가 필요한 다양한 기업 고객을 확보할 계획이다.

/구남영 기자

CARM 국가첨단전략기술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 포럼

2024.04.26(금)

13:00~17:00

서울 여의도 KRX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

-연사-



Robert Coppes
University Medical
Center Groningen



Ryuichi Okamoto
Tokyo Medical and
Dental University
(TMDU)



유종만
오가노이드사이언스
대표



임승원
현 애니젠 고문
전 한국R협회의 상근부회장



손미영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줄기세포융합연구센터장



최미혜
한국거래소
차장



정형구
미래드생명과학
이사

■ 행사개요

- **행사명:** CARM 국가첨단전략기술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 포럼
- **일시:** 2024년 4월26일(금) 13:00~17:00
- **장소:** 서울 여의도 KRX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1층)
- **주최:** (사)첨단재생의료산업협회
- **후원:** 충청북도
- **등록:** 운영사무국 M&C기획 02-721-9818 선착순, 사전접수만 입장 가능

포럼에 참가한분께 소정의 사은품을 증정합니다.



Registration

■ 프로그램

구분	시간	프로그램
참가등록	12:30~13:30	사전등록 (13:00~13:30 MP Tea 타임)
개회 및 축사	13:30~13:50	이특주 첨단재생의료산업협회 회장 윤건수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장 김명규 충청북도 경제부지사
섹션1	13:50~15:30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 연구 및 현황 강연1: Robert Coppes 교수 (동시통역제공) "Organoids for Post-Radiotherapy Regeneration of Salivary Glands, the RESTART study" 강연2: Ryuichi Okamoto 교수 (동시통역제공) "Clinical application of patient-derived organoids" 강연3: 유종만 오가노이드사이언스 대표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의 현황과 전망" 강연4: 손미영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줄기세포융합연구센터장 "인간전분화능 줄기세포 유래 오가노이드 원천 및 활용 기술 개발"
브레이크타임	15:30~15:45	커피 브레이크 및 자유네트워킹
섹션2	15:45~17:00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 시장과 전망 정형구 미래드생명과학 이사 "재생치료제 동향 및 오가노이드의 역할" 임승원 전 한국R협회의 상근부회장 "바이오벤처기업의 IPO 전략" 최미혜 한국거래소 차장 "찾아가는 기술특례 상장 설명"
폐회	17:00	정부 관계 부처 및 금융기관 전문가

신한제13호스팩 상장 '단타 주의' 원금 손실 없지만 자금 묶일수도

공모 청약경쟁률 1724.63 대 1
장 열린 직후 203.50% 올라
증가는 2195원... 쭉 하락세
"단타 수익 노려도 위험성 큰 시장"

미국 금리와 중동 지정학적 갈등으로 증시 변동성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는 가운데 신규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스팩)를 향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최근 스팩이 이른바 하루짜리 '단타 놀이터'가 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 상황이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신한제13호스팩이 코스닥 시장에 신규 상장했다. 스팩은 타 기업과의 합병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명목상 주식회사로 일종의페이퍼컴퍼니다. 신한제13호스팩의 확정 공모가는 2000원이며 공모 청약경쟁률은 1724.63대 1을 기록했다.

신한제13호스팩은 ▲전자·통신 ▲소프트웨어·서비스 ▲바이오제약·의료기기 ▲이차전지 ▲게임·엔터테인먼트 산업 ▲모바일산업 ▲신재생에너지 ▲자동차 부품 ▲신소재·나노 융합 나노 융합 등에 속하는 사업을 하거나 해당 산업에 부품·장비를 제조·판매하는 기업을 중점으로 합병을 추진한다.

또한 해당 업종에 속하지 않는 우량



신한제13호스팩 22일자 차트. /토스증권

회사와도 합병 추진이 가능하다.

신한제13호스팩은 상장 첫날 장이 열린 직후 203.50% 상승한 6070원을 기록했다.

하지만 이날 증가는 2195원으로 꺾였다. 오전장이 하락하다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그 이후에는 쭉 하락세를 보이며 4000원대를 회복하지 못했다.

결국 증가는 '파블'(공모가격의 2배)에도 못 미친 셈이다.

투자 커뮤니티에는 "다시 주가가 상승할까? 팔 시간을 놓쳤다", "원금 손실은 없지만 한동안 자금이 묶였다" 등의 반응이 올라왔다.

증권가에서는 코로나19팬데믹 이후 스팩이 '초단타 매매 시장'으로 바뀌었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스팩이 기업을 인수할 경우 해당 합병 회사의 이름으로 재상장하게 되면 다시금 주가 상승을 노려볼 수 있지만, 상장일에 이렇게 변동성이 큰 것은 투기나 마찬가지로"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도 "주가가 높은 스팩에 투자할 경우 손실 발생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지만 상장 첫날 주가 급상승은 최근 스팩 상장 때마다 일어나고 있다.

스팩주는 상장 후 3년간 인수합병(M&A)을 하지 못하면 상장 폐지된다. 그럼에도 원금은 손실되지 않고 공모가에 이자도 3% 내외로 받을 수 있다. 안전한 투자처이긴 하지만 자금이 일시적으로 묶일 수도 있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단타 수익을 노린다고 해도 위험성이 큰 시장"이라면서 "스팩 자체로도 주가가 너무 오르면 합병 대상을 찾기 힘들기에 이러한 현상이 기업에도 좋다고는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外人 이탈 우려에도 '밸류업' 반등세

은행·증권·자동차 지수 모두 올라
주주 이익보장 등 興野 공감대 형성
초당적 어젠다로 추진 가능성 보여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소야대가 실현되면서 윤석열 정부가 밀고 있는 '밸류업 프로그램'의 추진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밸류업 '큰손'이었던 외국인들의 증시 이탈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다만 관련주들은 반등 기미를 보이고 있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총선 이후 대표적인 저주가수자산비율(PBR) 주가 담긴 KRX은행, KRX증권 등의 지수가 하락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지수들은 총선 이후 19일까지 각각 6.16%, 6.46%씩 떨어졌다. 반면, 수출주인 현대차와 기아가 담긴 KRX 자동차 지수는 총선 이후에도 밸류업과는 별개의 변수로 등락을 반복하면서 평균이 대체로 유지됐다.

앞서 증권가에서는 밸류업 프로그램이 총선 결과를 의식하면서 투심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했다.

이용찬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밸류업 정책의 모멘텀 상실은 불가피해 보인다. 5월 이후 밸류업 정책은 예정대로 이어지겠지만 주가를 부양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밸류업이션이 받쳐주는 자동차, 배당수익률이 높은 은행주는 기밀 구석이 있어 조정 폭이 제한적인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세 지수 모두 22일에는 KRX은행 6.13%, KRX증권 4.85%, KRX자동차 2.72%씩 오르면서 반등 기미를 보였다.

시장에서는 연금금이 외국인 이탈의 빈자리를 채우면서 밸류업 수혜가 유지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하인환 KB증권 연구원은 "1분기 때 밸류업 프로그램을 주도했던 수급은 외국인이었다"라며 "밸류업 관련주에서 외국인의 수급만큼 연금금의 매수세를 중요하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날 코스피에서 외국인은

7805억원을 순매도했지만, 기관은 7886억원을 사들였다.

외국인들은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와 환율 강세로 코스피가 조정을 받을 때, '셀 코리아' 태도를 보이기는 했지만 실적주에 대한 선호는 유지했다.

이에 따라 실적과 주주환원 기대감,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자동차주에 대한 선호는 큰 변동 없이 유지된 모습이다.

총선 직후인 11일부터 19일까지 외국인들은 현대차를 3조1744억원 가량 순매수하면서 국내 증시에서 2번째로 많이 사들였다.

은행주 역시 높은 주주환원에 힘입어 투자자들의 선호가 유지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로 다수의 금융사 경영진들이 자사주 매입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밸류업 프로그램에 응하고 있다.

강진혁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주주의 비례적 이익 보장과 물적 분할 제한에 따른 소액주주 보호 등은 여야간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 초당적 어젠다로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자동차·은행 중심으로 양호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외국인들의 투심 변화는 여전히 주목된다. 1분기 밸류업 강세를 주도하며 3월 말까지 매수세를 유지하던 외국인들은 지난주 18일을 제외한 4거래일 모두 순매도세를 보였다. 특히 선물시장에서의 순매도세의 여파가 크다. 외국인은 지난 3일 이후 선물시장에서도 6조100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순매도를 기록 중이다.

다만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다음주 미국의 3월 개인소비지출(PCE, 4월 26일) 결과가 시장 예상치대로 둔화된다면 물가 및 통화정책 불안심리 진정의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이는 채권금리, 달러화 하향안정, 외국인 선물매수, 코스피 반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하은 기자 godhe@

자산운용사, 제살 깎는 수수료 인하경쟁

삼성자산운용, 국내 최저수준 인하
ETF 시장 점유율 1위 유지 목표
수익 악화로 전체 경쟁력 약화 지적

자산운용사들의 운용 수수료 인하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 최근에 대형 자산운용사까지 본격적으로 인하 경쟁에 가세하면서 자산 운용사들의 수익 악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중소형 운용사를 중심으로 0.01%대로 인하는 상장지수펀드(ETF) 상품이 나오는 등 수수료 인하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업계 1위인 삼성자산운용이 경쟁에 뛰어들었다. 삼성운용은 지난 19일 미국 대표 지수를 추종하는 ETF 4종에 대한 수수료를 연 0.05%에서 국내 최저 수준인 0.0099%로 인하했다. 1억원을 투자하면 투자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만 원이 채 안 되는 셈이다.

하지만 삼성운용 ETF사업부문장 부사장은 "ETF시장 선도운용사로서 국내 투자자들의 효율적인 장기 적립식 투자 문화를 확대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최대 수혜를 제공할 수 있는 미국 대표 지수 4종에 대한 보수 인하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삼성운용이 ETF 시장 점유율 1위 유지를 위해 수수료 인하에 나선 것으로 분석했다.

삼성운용은 2020년까지만 해도 시장 점유율 50%를 웃돌며 국내 ETF 시장을 선도했으나 경쟁사들의 추격으로



/유토이미지

점유율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 지난 18일 기준 삼성자산운용의 점유율은 39.39%로 2위 미래에셋운용(36.85%)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한 자산운용 관계자는 "다른 상품들 보다는 ETF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미국 대표 지수 추종 ETF에 대한 보수 인하는 상당히 공격적이라고 볼 수 있다"며 "중소형사가 비즈니스 진입목적으로 보수 인하를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지만, 업계 1위 운용사가 운용보수를 인하는 것은 미래에셋과의 시장 점유율 경쟁에 따른 대응이라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자산운용사들의 제살깎기식 치킨게임은 갈수록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경쟁사들은 수수료 인하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지만 점유율 격차가 벌어지면 인하에 나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운용사들의 수수료 인하 마

케팅으로 인해 중장기적으로 ETF 시장 전체의 경쟁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수익 악화로 상품 개발에 대한 투자가 축소돼 ETF 상품의 획일화를 가져올 수 있는 데다 자금력이 약한 중소형사들은 경쟁에서 밀려 도태될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 자산운용사 고위 관계자는 "보수 인하시, 당장은 해당 상품에 투자하는 소비자들은 좋을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건전한 ETF 시장 발전과는 배치되는 정책"이라며 "원가절감으로는 제품의 퀄리티를 올릴 수 없다는 것과 같은 논리"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업계는 가격을 낮춰서 경쟁을 하기보다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좋은 상품을 적절한 보수를 받고 운용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다"라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

대신증권, '대신 프렌즈' 20명 모집

판매 상품 대한 의견·아이디어 제시

대신증권이 금융서비스만족도 제고를 위한 고객참여제도를 실시한다.

대신증권은 판매 중인 금융 상품, 서비스 및 사후관리에 대한 개선 의견과 아이디어를 제시할 온라인 고객패널인 '2024 대신 프렌즈'를 20명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대신 프렌즈로 선정된 고객은 5월부터 약 4개월간 대신증권의 금융 상품 및 서비스를 직접 체험하며 온라인으로 과제를 수행한다. 과제를 통해 제시된 의견은 금융소비자보호 강화와 고객 만족도 제고를 위한 서비스 개선에 활용된다.

고객패널은 주어진 과제를 수행 건별로 최대 10만원의 활동비가 제공된다. 활동 결과에 따라 우수패널로 선정되면 상금이 제공된다. 상금은 1등 50만원(1명), 2등 30만원(1명), 3등 20만원(2명)이다.

'2024 대신 프렌즈'는 대신증권 상품



/대신증권

과 서비스를 이용 중인 고객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여 희망자는 30일까지 대신증권 및 크레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최종 선정 대상자는 5월 10일 개별 안내될 예정이다.

임유신 금융소비자보호부장은 "소비자 중심의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해 고객패널 제도로 소통을 진행하고 있다"며 "소비자 친화적인 금융서비스 개선을 위해 고객 여러분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작업높이 90m ‘고소작업차’로 국내 넘어 세계시장 ‘호령’

Q 르포
전기굴착기 등 생산
HR E&I 본사

서해안고속도로 서김제IC에서 빠져나와 차로 10여 분 달리면 만날 수 있는 만경농공단지. 이곳에는 글로벌 친환경·지능형 플랫폼회사로 도약하고 있는 토종기업 에이치알 이앤아이(HR E&I) 본사가 있다. 90년 당시 (주)호룡으로 설립한 HR E&I는 지난 2022년 8월 지금의 이름으로 사명을 변경했다. 본사 건물엔 아직 간판을 바꿔달지 않아 ‘주식회사 호룡’이란 글씨가 뚜렷하게 보인다. 본사 옆엔 김제 만경 들판에 물을 대는 큰 호수(능제저수지)가 있다. 옛 사명에 ‘호수호(湖)’가 들어간 이유다.

HR은 ‘호룡’, E&I는 ‘Eco&Intelligence’의 약자다. 농기계와 특장차 등을 만들던 회사는 친환경·지능형 플랫폼을 기반으로 전동화 모델까지 확장하며 세계 시장을 추가 공략, 글로벌기업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HR E&I는 고소작업차, 고가사다리차, 크레인, 콘크리트펌프카 등이 주력 생산품이다. 여기에 더해 유럽시장을 겨냥해 무게를 줄인 알루미늄을 비롯해 미래 먹거리인 전기굴착기, 전기 구동 자주식 크레인, 친환경 전동 고소작업대 등을 개발해 생산하고 있다.

기존 주력 제품은 본사가 있는 ‘만경 캠퍼스’에서, 전동화(전기) 제품은 차로다시 10여 분 거리의 지평선산업단지에 있는 ‘지평선 캠퍼스’에서 각각 생산한다.

두 캠퍼스에서 일하는 임직원은 3월 말 현재 240명에 달한다. 지방 농공단지엔 있는 기업으로선 제법 큰 규모다.

HR E&I의 신입사원 초봉은 고졸 3800만원, 대졸 4000만원이다. 규모가 크고 대우가 좋아 인근 지역에서 ‘김제의 삼성’이라고 부를 법도 하다.

그렇다보니 여느 지방기업이 고질적으로 겪는 인력난은 남의 이야기다. 지



김동열 HR E&I 대표가 전북 김제 지평선산업단지에 있는 ‘지평선 캠퍼스’에서 생산한 전기굴착기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고가사다리차·크레인 등 주력생산 만경 캠퍼스, 지평선 캠퍼스 2곳 운영 연봉 등 대우 좋아 ‘김제의 삼성’ 불려 올해 매출목표 2460억, 내년 3000억 ‘소형 미니굴착기’ 틈새 시장 노려 제품 배터리용량, 디젤의 95% 수준

“지속경영 가능한 회사 조성이 목표 협력사와 합심 튼튼한 회사 만들 것”



김동열 대표가 만경캠퍼스에 있는 고소작업차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역에 있는 마이스터고, 폴리텍대 등과 협력해 인재를 공급하고 있어 외국인력 은 ‘제로(0)’다.

“지난해 1888억원이던 매출은 올해 2460억원을 목표하고 있다. 내년에는 3000억원 돌파도 가능한 전망이다. 지난해 전체 매출의 약 40% 수준이던 수출은 내년엔 55~60%까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본사에서 만난 HR E&I 김동열 대표의 설명이다. 김 대표는 올해 1월 초부터 대표이사를 맡아 회사를 이끌고 있다.

특히 HR E&I는 지난해 미국 MEC와 전동방식의 핸들러, 자주식 크레인, 고소 장비 등에 대해 5년간 15억 달러(약 2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공급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확실하게 다진 셈이다. HR E&I는 지난해엔 ‘일억불 수출탑’을 수상했다.

김 대표는 “현재까지 해외 수출의 45% 가량을 미국에서 거두고 있다. 친환경 모델은 유럽을 중심으로 추가 공략해 나갈 계획이다. 전동화 모델 생산을 위해선 지평선 캠퍼스에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 부지는 이미 충분히 확보해 놨다. 투자금 마련을 위해 내년 하반기엔 증권시장 상장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HR E&I는 해외시장을 공략하는 과정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수출바우처사업 등 정책자금의 지원을 받아 큰 도움이 됐다.

회사의 기술력은 이미 세계 시장에 정평이 나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매출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고소작업차다. 고소작업차는 사람이 탑승해 빌딩을 보수하거나 무거운 건설자재를 운반하는 작업 등에 주로 쓰인다.

김 대표는 “고소작업차는 작업높이 기준으로 20m부터 최고 90m까지 생산한다. 특히 아파트 30층 높이인 90m급은 국내에서 가장 높다”고 설명했다.

국내외 경쟁사들은 주로 30m 이하가 주력 상품이다. 유럽의 경우 100m 높이의 고소작업차도 있다. 빠르게 따라오는 중국도 30m 이하가 대부분인데다 기술력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고소작업차의 작업높이가 높을수록 부가가치는 더욱 뛰어나다.

22년 당시 50억원에 그쳤던 HR E&I의 영업이익은 지난해 81억원으로 늘어났다. 이어 올해엔 244억원을 목표하고 있다. 3000억원대 매출을 목표하고 있는 내년엔 영업이익 365억원을 기대하고 있다.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들이 효과 역할을 톡톡히 하면서다.

특히 고소작업차는 사람이 탑승해 작업하기 때문에 안전이 생명이다. HR E&I가 초고장력 강판을 사용하고 다수의 안전장치를 제품에 장착해 선보이는 것도 ‘안전’ 때문이다.

HR E&I의 지평선 캠퍼스엔 일반건설용으로 이미 시판에 들어간 전기 미니굴

착기가 출고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김 대표는 “우리 대기업들이 만들지 않는 소형 미니굴착기로 틈새를 노릴 계획이다. 5.5t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일부에서 우려하는 배터리 용량은 디젤의 95% 수준까지 올라온 상태다. 내년부터는 4세대, 5세대 제품을 잇따라 선보이며 해외 마케팅도 본격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출시하는 제품은 고속으로 1시간, 완속으로 4시간 충전하면 고부하 기준 4.5시간 연속으로 작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특히 전기를 이용하는 소형굴착기는 실내 등 폐쇄된 공간에서 매연이나 큰 소음없이 작업할 수 있어 무엇보다 쾌적한 것이 장점이다. 위험 및 오염이 우려되는 곳에선 원격 조정도 가능해 금상첨화다.

전기를 쓰는 친환경 자주식 크레인은 2018년 당시 동탑산업훈장을 받았다. 최대 인양능력 4.5t, 9t을 각각 자랑하는 이들 제품은 이름만 대면 알만한 국내외 기업이 주요 고객이다.

“꾸준히 성장하고 지속경영이 가능한 회사를 만들어가는 것이 목표다. 튼튼한 뿌리가 있어야 외풍을 견딜 수 있기 때문이다. 임직원들과 함께, 협력업체와 합심해 튼튼한 회사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우리 제품인 사다리차를 (더 높이)올리는 것과 매출을 올리는 것, 회사가 성장하는 게 모두 같은 이치 아니냐(미소).”

/글·사진=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HR E&I 지평선 캠퍼스에서 생산한 전기굴착기들이 출고를 기다리고 있다.

정부-8개 조선사, 안전문화 확산... 위험표지판 부착 등 실시

HD현대중공업 등 업무협약 체결
안전보건 협의체 구성·합동점검
'조선업 10대 안전수칙' 집중 전파

조선업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정부와 8개 주요 조선사가 안전보건 협의체를 구성해 민관 합동 안전점검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22일 오후 LW컨벤션에서 HD현대미포, HD현대사호, HD현대중공업, HJ중공업, 대선조선, 삼성중공업, 케이조선, 한화오션 등 8개 조선사, 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조선업 안전문화 확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조선업은 최근 수주량 회복으로 호황을 맞고 있으나 외국인 근로자 등 신규인력이 다수 유입되고 작업량 증가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위험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클락스 리서치에 따르면, 국내 조선업은 2022년 세계 선박 발주량 점유율에서 2위, 고부가·친환경 선박 시장 점유율은 1위를 기록했다. 2023년 1~3분기 조선업 신규 총원 인력 중 외국인은 86%를 차지한다. 다만 조선업 특성상 제조업과 건설업 위험요인이 공존해 조선업의 사고사망만인율은 0.86퍼밀리아드(만분율)로 통상의 두 배에 달하는 상황이다.

이에 주요 조선사와 정부가 민관 합동으로 전국 조선업 현장에 안전문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9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일·가정 양립 정책 세미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를 확산하고자 이번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8개 조선사와 고용부, 안전공단이 참여하는 안전보건협의체가 구성된다. 협의체를 중심으로 협업 방안을 논의하고 조선사 합동 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또 사업장 내 주요 위험요인에 대한 구체적인 안전 메시지를 부착하는 '위험표지판 부착 캠페인'을 통해 누구나 제대로 안전수칙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조선업 10대 주요 안전수칙'도 집중 전파해 기초적인 안전수칙을 알지 못해 사고로 이어지는 없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안전교육에서도 조선사 간 협력이 강화된다. 기존 조선사별로 보유한 교육

자료와 설비를 함께 활용해 보다 내실화된 조선사 합동 교육이 시행된다. 특히, 언어장벽으로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 근로자 안전관리를 위해 최대 25가지 언어로 번역된 교육 자료 17종도 공유·지원한다. 원청에 비해 안전관리에 취약한 협력업체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이정식 장관은 "오늘 협약은 세계무대에서 선의의 경쟁을 펼치는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안전에서만은 '원팀(One team)'임을 선언하는 자리"라며 "오늘 모인 8개 조선사들이 협약을 바탕으로 중대재해라는 큰 파도를 막아주는 방파제를 함께 쌓아가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농식품장관 "닭고기 가격 안정" 당부

송미령 장관 한강식품 방문·점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2일 국내 한 닭고기 공급업체를 찾아 소매 가격 안정화를 강조하고, 이를 위한 조류인플루엔자(AI) 대비 방역 강화를 주문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송 장관은 이날 경기 화성 소재 ㈜한강식품(닭 계열화 사업자)을 방문해 닭고기 수급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수렴했다.

송 장관은 "계열화사업자가 중심이 돼 계열농장의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생산기반을 확대해 닭고기 가격안정에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또 정부가 닭고기 납품단가 인하지원을 올 연말까지 추진해 소비자 물가 부담 완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겨울 철저한 방역관리로 AI 발생이 최소화되고, 닭고기 공급이 증가해 수급이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며 "당분간 소비자가 가격 안정세를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2일 경기 화성의 한 닭고기 공급업체를 방문해 수급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농식품부

농식품부는 계열화사업자와 협력해, 종계와 병아리 추가입식을 지원해 닭고기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긴급 가격안정자금을 활용하여 연말까지 계열화사업자가 하나마트를 비롯한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값을 낮춘다는 방침이다.

이번 방문은 지난 겨울 고병원성 AI 피해 최소화가 수급에 미친 영향을 확인하는 자리였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국립공원 캠핑장서 다회용기 대여 시작

환경부, 친환경 사업 공동추진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 22일 SK텔레콤 및 재단법인 행복커넥트와 '국립공원 야영장 다회용기 대여서비스' 등을 포함한 친환경 사업 공동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이번 업무협약은 국립공원 야영장에서 일회용 폐기물을 줄이고 탄소중립 야영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국립공원 야영장 다회용기 대여 서비스'는 다음 달 2일부터 5개 국립공원 내 6개 야영장에서 우선 적용된다. 지리산국립공원 내원야영장을 비롯해 덕유산국립공원 덕유대 2야영장, 오대산국립공원 소금강산 야영장, 변산반도국립공원 고사포 1·2야영장, 북한산국립공원 사기막야영장 등

이다. 또 향후 대여 서비스 제공 지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대여 서비스에 쓰이는 다회용기는 스테인리스 소재의 그릇과 접시, 수저 및 다회용 컵 등 15종으로 구성된 일회용품 없이 편리하게 탄소중립 야영을 즐길 수 있다. 야영객에게 제공되는 다회용기는 대여·세척 전문 사회적기업인 행복커넥트에서 회수해 전문 설비에서 세척·소독 과정을 거친 뒤 다시 야영장에 제공된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국립공원은 우리나라 최대의 보호지역인 만큼 일회용 폐기물 저감을 위해 다회용기 대여 서비스를 선도적으로 도입했다"며 "국민이 편리하게 친환경 야영을 즐길 수 있도록 탄소중립 야영 문화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농촌융복합 스타트업 발굴 '자문사 2곳' 선정

농식품 액셀러레이터 육성지원
농촌지역 창업생태계 조성 강화

농림축산식품부가 22일 농촌융복합 분야 우수 신성장업계를 발굴하기 위한 전문 액셀러레이터(투자 및 지도·조언 등을 통해 스타트업을 길러내는 기관) 2개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민간 주도의 농식품 벤처창업 지원을 위해 '농식품 액셀러레이터 육성지원' 사업을 실시 중이다. 이는 농촌지역에 주 사업장을 두고 국내 농산물을 제조·가공업(2차), 체험·관광업(3차) 등과 결합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뜻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존 지능형농장(스마트팜)·푸드테크 등 농식품 기술 분야 외 농촌융복합 분야



세종 정부청사 내 농식품부 전경. /메트로

를 신설해 농촌지역 내 창업생태계 조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액셀러레이터 2개사는 한국사회투자자와 로우파트너스·충남 기술지주 컨소시엄이다. 이 두 곳은 농촌융복합 스타트업을 각각 10개사 이상 발굴해 기

업 진단, 멘토링, 최소 2억8000만 원 이상의 액셀러레이터 자체 투자 및 민간 투자 유치 등을 지원하게 된다.

지원 대상은 농촌융복합 사업자 인증을 받은 창업 7년 미만의 기업이다. 다음 달 2일부터 프로그램 신청페이지를 통해 모집할 예정이다. 액셀러레이터별 세부 계획은 농식품 창업 정보망, 케이스타트업 및 농촌융복합산업 누리집(6차산업.com)에서 확인 가능하다.

김종구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농촌에도 성장잠재력이 있는 유망한 기업들이 많다"며 "농촌소멸 위기에 대응해 농촌을 농업인뿐만 아니라 청년, 혁신가, 기업가들이 모이는 창의적 공간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국립생물자원관, 유전자원 관리 기술 전수

환경부, 에코도르 연구자 대상 연수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이 22일부터 2주간 에코도르의 유전자원 관리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최신 유전정보 분석 및 관리 기술 전수'를 위한 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인천서구 국립생물자원관에서 진행되는 이번 연수는 한국국제협력단의

공적개발원조 사업인 '에코도르 국가 유전자원 데이터은행 설립' 사업(2022~2028)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에코도르 국립생물다양성연구소(INAB IO) 및 7개 바이오센터 소속 연구자 10인을 초청해 향후 에코도르의 자립적인 유전자원 데이터은행 운영에 필요한 인적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연수일정은 △유전자원관리 시설과

기술 △우리나라 자생생물 관리 시스템 △디엔에이(DNA) 바코드 생성 및 기서열분석 △생물정보학 등에 관한 이론과 실습과정으로 이뤄져 있다.

자원관은 지난해 에코도르 생물자원 기관 소속 연구자와 관리자 17명을 초청해 연수를 실시한 바 있다. 내년부터는 국내 전문가를 에코도르로 장기 파견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오는 2028년까지 총 295명의 현지 유전자원 관리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22~26일까지 5일간 진행

노사발전재단은 22일~26일까지 5일간 캄보디아 노동직업훈련부 립시흥 부차관 등 소속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캄보디아 노동정책 발전을 위한 초청 연수를 진행한다

이번 연수에서 캄보디아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 등 소속 국·과장 등은 우리나라 한국노동연구원 등을 방문해 최저임금 결정 등 노동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조사 인프라 등에 대한 강의와 간

담회에 참석한다.

특히, 우리나라 노동위원회 공익조정위원과 고용부 베테랑 근로감독관이 참여해 한국의 분쟁조정 및 근로감독 현장 노하우를 전수하고, 지속적인 정책교류를 위한 네트워크도 구축하게 된다.

앞서 노사발전재단은 2015년 최저임금 및 근로감독 분야에서 캄보디아 근로 조건 개선 정책 자문을 수행했고, 그 결과 2019년 캄보디아 최저임금위원회(NMWC)가 설립됐다.

/세종=한용수 기자

1 the hilt

스크리밍 이글의 또 다른 도전!
더 힐트, 당신의 마음을 꿰뚫다.



더 힐트 이스테이트 샤도네이

NARA CELLAR

*지나친 음주는 뇌졸중, 기억력 손상이나 치매를 유발합니다.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생 위험을 높입니다.

광주시, 15개 기관·65개 정보시스템 민간클라우드 전환

클라우드 컴퓨팅 시범사업 따라 총 63억 투입해 통합환경 구축 자원 최적화로 이용료 연 3억 절감 2030년까지 단계적 전환 계획

광주시가 민관협력형 클라우드 기반 통합환경을 구축하며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공공시스템 운영에 한발 다가섰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행정안전부의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활용모델 시범사업'에 따라 총사업비 63억원을 투입해 시와 자치구,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등 총 15개 기관의 65개 정보시스템을 민간클라우드 환경으로 전환했다.

클라우드컴퓨팅은 집적·공유된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설비, 소프트웨어 등 정보통신자원을 이용자의 요구나 수요변화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해 신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광주광역시는 시·자치구 등 15개 기관 65개 정보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전환하여 운영예산 연 3억원을 절감했다. /광주광역시

정보처리체계를 말한다.

광주시는 민간클라우드 전환으로 연 3억원의 이용요금을 절감했다. 클라우드로 전환된 시스템을 통해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CPU, 메모리, 스토리지, 백업 용량 등 최적화 작업에 따른 것이다. 자치구와 산하기관에도 자원 최적화를 독려하고 상담을 통해 전체적인 이용요금을 줄였다.

민간 클라우드의 경우 사용량에 따라 비용이 청구돼 초기 구축 이후 지속적인 운영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자원(리소스)을 최적화한 게 주효했다.

이처럼 클라우드 전환은 행정의 업무 연속성을 확보하고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시정 운영을 통해 행정의 신뢰성 제고와 운영비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또 시민에게 보다 안정적으

로 대민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민간 클라우드 사업자에게 경쟁력 강화와 서비스 시장 활성화에 기여한다.

광주시는 아직 전환되지 않은 정보시스템은 오는 2030년까지 시스템 교체 시기에 맞춰 단계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클라우드시스템 운영 모니터링과 꾸준한 자원 최적화를 통해 자원간 통합 등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추가적인 예산절감은 물론 지속할 수 있는 클라우드 시스템의 운영으로 공공서비스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배일권 기획조정실장은 "클라우드 시스템 전환은 디지털 전환 시대에 공공서비스 혁신을 선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민간클라우드를 적극 활용해 더욱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공공시스템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양수영 기자 ysn6313@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대구시

어르신 급행무임 교통카드 발급

대구광역시는 전국 최초로 상이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급행버스를 무료로 탑승할 수 있는 '어르신 급행무임 교통카드'를 4월 22일부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하며, 5월 1일부터 무료로 탑승할 수 있다.

기존의 상이국가유공자는 국가보훈부에서 발행한 국가유공자 교통복지카드로 전국 일반 시내버스와 도시철도를 무임승차 할 수 있으나, 급행버스는 무임승차에서 제외됐다.

그동안 상이국가유공자는 신분 확인 후 급행버스를 이용하고 있어 신분을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안전상의 우려 등으로, 급행버스만 무료로 탑승할 수 있는 '어르신 급행무임 교통카드'를 발급하게 됐다.

/대구=김상복 기자 ksb8100@

정읍시

축산농가 저탄소 영농활동 지원

정읍시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축산농가에 저탄소 영농 활동을 지원하는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은 축산농가의 저탄소 기반 실현을 위해 저메탄·질소 저감사료 급여에 따라 활동비(보조금)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축종에 따라 12개월 이행을 기준으로 두당 한·육우는 2만 5000원, 젖소는 5만원, 돼지는 5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정읍(전북)=양수영 기자

나주시

'국가유산 경관개선' 사업 선정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문화재청에서 공모한 '국가유산 경관개선' 사업에 선정되어, 원도심 국가유산 주변에 살아가는 주민들의 정주환경을 개선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사업은 국가유산지정 구역에 살고 있는 마을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낙후된 정주기반시설 개선을 지원한다.

국가유산 보수·정비 위주의 기존 예산 지원과 규제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주민과 공존하고 상생하는 국가유산 보호체계를 구축하는데 중점을 둔다.

/나주(전남)=양수영 기자

여수시

'여수밤바다 낭만버스킹' 재개

여수 밤바다를 더 화려하게 만들 '여수밤바다 낭만버스킹'과 '우리동네 청춘버스킹'이 오는 26일 다시 찾아온다.

공연은 10월 26일까지 ▲낭만버스킹은 매주 금토 저녁 7시부터 9시30분까지 2시간 30분 ▲청춘버스킹은 매주 토요일(여름성수기 8주간 금요일 추가)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 동안 펼쳐진다.

'여수밤바다 낭만버스킹'은 해양공원 3개소, 낭만포차, 남산공원 등 5개소에서 댄스, 무용, 어쿠스틱, 퍼포먼스 등 특화된 장르의 수준 높은 공연을 선보인다.

/여수(전남)=전정신 기자 spirit@

경북도, 제조업 AI솔루션 실증·확산

영남권 5개 광역지자체와 공모 선정 2026년까지 총사업비 450억 투입 경북SW진흥본부서 AX랩 구축

경북도가 영남권 광역지자체와 공동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제조업 AI융합 기반 조성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국비 300억원을 확보했다.

이번 사업은 경북을 포함한 영남권 5개 광역지자체가 올해부터 2026년까지 총사업비 450억원(국비 300억, 지방비 150억)을 투입해 생산설비 노후화, 인력난, 산업재해 등 어려움을 겪는 제조 산업의 현안해결을 위한 AI 솔루션을 개발하고 이를 제조현장에 실증·확산한다.

전통적으로 제조업이 주력산업인 영남권 각 시도는 지역별 중점산업인 ▲철강(경북) ▲기계부품(부산) ▲지

능형기계(대구) ▲화학(울산) ▲자동차부품(경남)을 대상으로 혁신적 제조 기술을 개발·실증하고, 지역 간 교차 실증 및 AI솔루션 복합 실증을 초광역 협업과제로 추진한다.

경북도는 철강산업이 집중된 포항시를 중심으로 총 9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기업수요 맞춤형 AI기술을 개발하고 철강기업을 대상으로 실증해 파급효과가 큰 사례들은 지역 전체 제조 산업 AI융합모델로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도는 이번 사업을 수행하는 경북SW진흥본부(포항테크노파크)에 지역 제조데이터 분석·가공 및 AI솔루션 개발을 위한 AX랩을 구축하고 5월중 공모를 통해 AI 기업과 실증을 원하는 제조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경북=장영우 기자 ycyw57@

부산시, 노후·고위험시설 1219곳 안전점검

'점검 대상 주민신청제'로 체감도 ↑ 첨단 기술장비로 사각지대 최소화

부산시는 4월 22일부터 6월 22일까지 61일간 최근 사고발생시설 등 노후·고위험시설 1219곳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안전 대(大)전환, 2024년 집중 안전점검'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집중안전점검 대상 시설 1219곳은 최근 사고가 발생한 어린이 놀이시설, 물놀이 유원시설, 대형 공사장과 물류 창고, 대형 판매시설과 출렁다리 등 다중이용시설 그리고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노후·고위험시설 등 10개 분야에서 선정됐다.

아울러 지역 주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시설을 점검하는 '점검 대상 주민신청제'를 진행해 집중안전점검 기간 시민들이 안전점검 활동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집중안전점검에서는 시와 자치구·군, 사업소, 공사·공단 등 유관 기관과 전문가, 관련 단체 등이 합동으로 점검에 참여하며 각 기관장도 직접 현장을 찾아 점검하는 등 내실 있는 안전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드론, 사물 인터넷(IoT) 카메라, 열화상 카메라 등 첨단 기술 장비를 활용해 시설물의 특성상 육안이나 일반 장비로 점검이 곤란한 시설까지 점검함으로써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고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시는 점검 결과를 정보공개 통합공개시스템에 공개하고 이곳에 점검자의 실명도 공개해 안전점검의 책임성도 강화한다. 주민참여 강화와 생활 주변 위험 요소 제거를 위한 안전신문고 활용도 적극적으로 장려할 계획이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고흥군, 나로호·누리호 실물 전시관 운영

내달 고흥우주항공축제서 선포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오는 5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나로우주센터 우주과학관 일원에서 열리는 제14회 고흥우주항공축제에서 나로호·누리호 실물체를 만나볼 수 있는 특별전시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우주로 가는 생생한 역사를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전시관에는 ▲한국형 과학탐사 로켓인 KSR-I, II, III, ▲인공위성을 우주에 진입시킨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발사체인 KSLV-I, II(나로호·누리호) ▲위성을 탑재한 페이로드 어댑터 ▲비행 중에는 대기 마찰열과 압력변화로부터 탑재 위성을 보호하는 페이로드페어링 ▲누리호 75톤 엔진 ▲누리호 2차 발사 때 쏘아 올린 성능 검증 위성 모



오는 5월 4일부터 6일까지 나로우주센터 우주과학관 일원에서 열리는 제14회 고흥우주항공축제에서 나로호·누리호 실물체를 만나볼 수 있는 특별전시관을 운영한다. /고흥군

델도 함께 전시되며, 아폴로 11호 달 착륙선 모형도 제작 전시해 우주로의 꿈을 선보이게 된다.

또한, 축제 기간에만 만나볼 수 있는 ▲카이스트에서 참여하는 증강현실달 표면 체험 등이 함께 구성돼 우주항공 축제의 기대감을 높여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흥(전남)=양수영 기자

'부산국제단편영화제' 개막... 136편 상영

오는 25일부터 30일까지 열려

국내 최대 단편영화제인 부산국제단편영화제 제41회 행사가 오는 25일부터 30일까지 6일간 영화의 전당 B NK 부산은행 아트시네마 모뎀극장에서 열린다.

올해 주제는 '영화 & 현실(Cinema & Reality)'로 116개국의 3682편이 출품돼 이 중 국제 경쟁 39편, 한국 경쟁 20편을 포함해 총 43개국 136편의 영화가 상영될 예정이다.

개막작은 영화제 개최 이후 처음으로 초청작이 아닌 국제 및 국내 경쟁작품 중에서 주빈국, 아시아 그리고 한국 작품 총 3편이 선정됐다. 개막작은 '다이빙'(이탈리아), '진짜 맹세해'(아시아), '내 어머니 이야기'(한국)로

25일 오후 7시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에서 열리는 개막식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개막식 사전공연으로 부산국제단편영화제 공식 포스터를 드론으로 그리며 '드론 드로잉 퍼포먼스 콘서트'를 반도네온 연주와 선보일 예정이며, 개막공연으로는 이탈리아 피아니스트 주세피나 토레의 '시네콘서트'가 준비되어 있다.

특히 올해는 한·이탈리아 수교 140주년을 맞아 이탈리아를 주빈국으로 선정해 '티아모(Tiamo)! 이탈리아!' 슬로건 아래 이탈리아의 다양한 단편 영화를 상영한다. 주빈국 프로그램은 매년 한 국가를 선정해 해당 국가의 단편영화를 아주 깊고 넓게 소개하는 것이다.

/부산=이도식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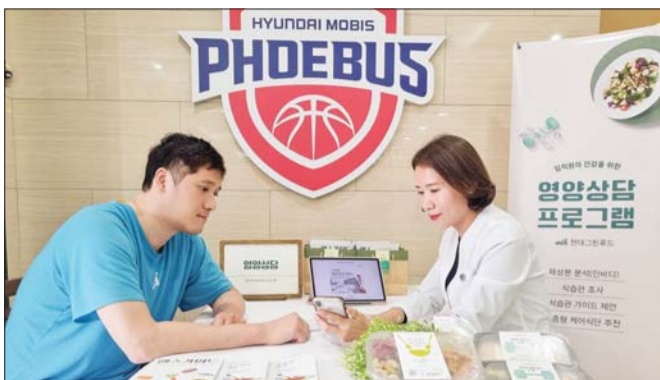
호실적에도 외식 솔루션·맞춤 케어식단 등 '수익처 다변화'

급식·식자재 업계 '악재' 대비 CJ프레시웨이 '이츠웰 레드' 론칭 사업자에 영업용 밀키트 상품 제공

아워홈 OHFOD 외식솔루션 전개 2만여개 레시피로 사업장별 제안

급식·식자재 업계가 대외 불확실성에 대비해 상품력을 강화하고 컨설팅 솔루션 사업에 힘주는 등 새로운 수익처 다변화에 나서고 있다. 엔데믹 전환과 고물가로 구내 식당을 찾는 직장인이 늘면서 지난해 호실적을 기록했지만 이에 안주하지 않겠다는 의지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주요 급식·식자재 기업들은 지난해 호실적을 기록했다. CJ프레시웨이는 지난해 연간 매출(연결)은 전년대비 11.9% 늘어난 3조 742억원, 영업이익은 1.4% 증가한 993억원을 기록했다. 현대그린푸드도 지난해 매출은 전년대비 10.5% 증가한 2조 1227억원, 영업이익은 3% 증가한 822억원으로 집계됐다. 삼성웰스토리에서 운영하는 삼성웰스토리의 경우 식음부문 매출은 전년대비 8.16% 늘어난 2조 7990억원, 영업이익은 75.3% 늘은 1280억원을 기록했다.



현대모비스 피버스 합지훈 선수가 '그리팅 애슬릿' 전문 영양상담을 받고 있다. /현대그린푸드



CJ프레시웨이가 브랜드 컨설팅을 제공해 두가지컴퍼니가 론칭한 국 요리 전문 브랜드 '국영웅' 메뉴. /CJ프레시웨이

업계 관계자는 외식 물가 상승으로 인한 구내 식당 수요 증가와 식자재 유통 사업이 호조세를 보이면서 수익성이 크게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낙관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의료 파업이 장기화하면서 병원 단체급식이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의료계가 반발하면서 지난 2월 시작된 '의료 대란'이 벌써 두달간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현재 별다른 해결책이 도출되지 않아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업계는 본원적 경쟁력 강화는 물론, 안정적인 수익원을 위해 협력업체를 상대로 외식 솔루션 사업과 '초개인화' 상품 개발 등에 나섰다.

외식 솔루션은 외식사업 초기부터 단계별 컨설팅을 제공하는 비즈니스 모델이다. CJ프레시웨이가 주도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실제로 CJ프레시웨이가 브랜드컨설팅을 진행한 외식프랜차이즈 두가지컴퍼니(두가지떡볶이 본사)의 볶음밥·우동 전문점인 '밥앤동'은 론칭 1년 만에 매장 수 100호점을 넘겼고, 지난해 연말 두가지컴퍼니와 추가 협업을 통해 국 전문 브랜드 '국영웅'도 선보였다.

최근 밀(Meal)솔루션 전문 브랜드 이츠웰 레드도 론칭해 관심을 모았다. 프랜차이즈뿐 아니라 개인 외식사업자와 급식사업자 등에 영업용 밀키트와 간편조리형 레디미틀 등 상품을 제공하는

전문 브랜드다.

아워홈은 식음사업 토탈 컨설팅 서비스인 'OHFOD(운영·위생·메뉴·맞춤제조·공간디자인)'를 통해 급식, 식재유통, 외식사업 운영 노하우를 집약한 외식 솔루션 서비스를 전개하고 있다. 아워홈이 급식·외식 사업 과정에서 쌓아온 2만여 가지 레시피를 고객업장에 따라 제안한다.

업계가 단순히 식자재 공급을 넘어 외식 솔루션 사업에 힘을 주는 이유는 프랜차이즈와 메뉴를 개발하거나 신규 브랜드를 론칭하면 보다 안정적으로 공급처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협력사 입장에서 브랜드 및 메뉴개발 등 고민을 덜고 조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초개인화 트렌드에 맞춰 헬스케어 식단 및 프로그램도 선보인다. 현대그린푸드는 이달부터 프로농구 '울산 현대모비스 피버스'에 운동선수 전용 맞춤형 케어푸드 솔루션 '그리팅 애슬릿'을 제공중이다. 프로스포츠 선수에게 영양상담과 맞춤형 케어푸드를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현대그린푸드가 처음이다.

그리팅 애슬릿은 전문 운동선수의 특성에 맞춰 영양상담 과정을 더욱 전문화한 것이 특징이다. 현대그린푸드 영양사가 선수 개인별 체성분 분석 결과와 영양 상태·식습관·알레르기 등을 확인하고 AI 분석을 통해 최적의 케어푸드 식단을 선별해 제안하는 방식이다. 향후 다양한 스포츠 종목으로 그리팅 애슬릿 적용 범위를 넓혀갈 계획이다.

삼성웰스토리는 2025년 말까지 삼성서울병원과 협업체 일일식과 맛과 영양이 유사하면서도 식도암 생존자의 특성을 고려해 소화기능이 잘 되는 식도암 생존자 맞춤식을 개발해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식사 추천, 배송, 식사 기록, 영양관리가 하나의 플랫폼에서 원스톱으로 이뤄질 수 있는 개인맞춤형 케어서비스 모델도 개발해 식도암 생존자들이 손쉽게 식사관리를 할 수 있도록 만들 계획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정관장, 메가왓티 바람 타고 인니에 'K-홍삼' 알린다

(정관장 배구단 소속 인니 선수)

KGC인삼공사, 자카르타에 매장 오픈 고소득 화교층 중심 정관장 수요 증가 배구단 인스타 팔로워 28만명 넘어서

글로벌 종합건강기업 KGC인삼공사가 정관장 배구단 소속 '메가왓티'의 나라 인도네시아에서 대한민국 홍삼을 알리기 위한 현지 마케팅을 강화한다.

대한민국 배구 코트에 인도네시아 돌풍을 몰고 온 메가왓티는 시즌 정관장 레드스파크스에 합류한 선수로, 7년 만에 봄배구에 진출하는데 기여하는 등 맹활약을 펼쳤다. 메가왓티의 눈부신 활약으로 구단 공식 SNS도 뜨겁다. 작년 7월에 2만명 정도였던 배구단 인스타그램 팔로워는 올해 4월에는 28만명을 훌쩍 넘어섰다. 유튜브 구독자



지난 20일 경기 후 메가왓티가 어머니(왼쪽), 오빠(오른쪽)와 함께 정관장 선물을 받고 기뻐하고 있다. /KGC인삼공사

는 23만명을 넘어서며 지난해에는 남녀 프로 배구단 최초로 10만명 이상 달성한 채널에 수여하는 실버버튼을 획득했기도 했다. 구독자 중 인도네시아의 비율은 86%에 달할 정도로 현지인의 관심은 뜨겁다.

정관장은 인도네시아 현지인들의 메가왓티의 폭발적인 인기가 정관장 홍삼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질 기대하고 있다. 현재 정관장은 인도네시아의 수도이자 최대 도시인 자카르타에 위치한 고급 백화점인 롯데에비뉴 내에 매장을 입점하여 운영 중이다. 주요 고객은 고소득 화교층이며 이들을 중심으로 명절 선물 등 정관장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다.

최근에는 인도네시아 스포츠협회 초청으로 자카르타에서 치뤄진 올스타팀과의 친선경기 일정에 맞춰 정관장은 대한민국 대표 홍삼을 알리기 위한 다양한 행사도 진행했다.

자카르타 정관장 매장에서는 '메가왓티 프로모션'을 지난 17일부터 21일

까지 5일간 진행했다. 매장을 방문한 모든 고객에게 정관장 샘플키트를 증정했으며 정관장 전 제품을 할인된 가격에 판매했다. 여기에 구입 금액대별로 '메가왓티 인형', '메가왓티 유니폼', '정관장 골드카드'를 증정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며 현지 소비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KGC인삼공사는 인삼류 대상 수입 쿼터제, 할랄 의무화 등 인도네시아의 강화되는 규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글로벌 No.1 홍삼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알릴 예정이다. /신원선 기자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hy 발효홍삼 키성장엔 출시

hy는 어린이 키성장 제품 '발효홍삼 K 키성장엔 HT042(이하 키성장엔·사진)'를 출시한다고 22일 밝혔다. hy는 신제품을 통해 발효홍삼 라인업을 강화하고 어린이 영양제 시장을 공략할 계획이다.

키성장엔은 '황기추출물 등 복합물(H T042)'을 함유한 건강기능식품이다. HT042는 경희대 한의대 연구팀이 15년에 걸쳐 개발한 기능성 소재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정한 개별인정형 원료로 어린이 키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신제품은 HT042 외에 hy가 자체 개발한 '발효홍삼농축액'을 비롯해 아연 등으로 기능성을 높였다. /신원선 기자

대상웰라이프 고혈압 환자용 '혈압플랜'

대상웰라이프는 국내 최초로 고혈압환자를 위해 맞춤 설계된 전문 균형영양식 뉴케어 '혈압플랜(사진)'을 출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신제품은 지난해 8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신설한 특수요양도식품에 속하는 고혈압환자용 영양조제식품이다. 식약처 기준에 맞춰 고혈압환자의 식사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구성한 한 끼 식사 대응으로도 부담 없이 섭취할 수 있다.

혈압플랜은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선민 원장과 공동 개발한 뉴케어만의 BP 프로 설계를 적용했다. 미국 국립보건원(NIH)이 고혈압환자에게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DASH 식단을 반영한 '4하이 4로' 설계를. /신원선 기자



롯데백 잠실점, 업계 첫 'AI 통역서비스'

트랜스토키 기반 13개 국어 통역

롯데백화점 잠실점이 국내 유통업계 최초로 '인공지능(AI) 통역 서비스'를 선보인다.

롯데백화점은 지난 19일부터 에비뉴엘 잠실점 1층과 롯데월드몰 지하 1층에 위치한 안내데스크 총 두 곳에서 'AI 통역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22일 밝혔다.

AI 통역 서비스는 SK텔레콤에서 출시한 AI 기반 통역 솔루션 '트랜스토키'를 기반으로 영어, 일본어, 중국어, 베트남어, 스페인어, 독일어, 태국어

등 총 13개 국어의 실시간 통역 안내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음성 인식(STT), 자연어 처리(NLU), 번역 엔진, LLM(거대언어모델) 등 최신 디지털 기술이 대거 적용됐다.

외국인 고객이 안내데스크에 설치된 LED 투명 디스플레이 앞에서 본인의 언어로 질문하면 한국어로 번역된 문장이 안내데스크의 스크린에 표시된다.

이를 확인 후 안내데스크 직원이 한국어로 답하면 해당 내용이 질문한 언어로 지체없이 실시간으로 변환돼 모니터에 송출된다.

/최빛나 기자 vitna@

'온라인 슈퍼세일 홈플러스' 매출 20% ↑

홈플러스, 연어 매출 576% 급등

홈플러스는 고객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진행한 '온라인 슈퍼세일 홈플러스' 1주차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최대 20% 증가했다고 22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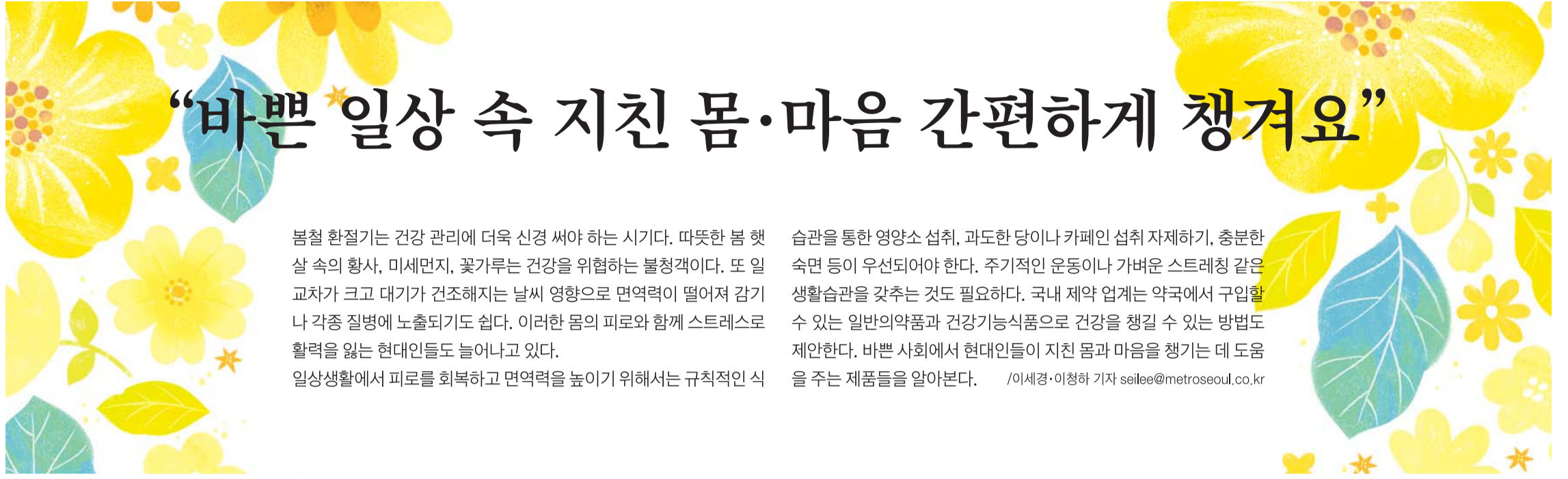
'온라인 슈퍼세일 홈플러스'는 홈플러스가 지난 3월 진행한 창립 27주년 기념 대규모 할인 행사 '홈플러스'의 연장선으로, '홈플러스'의 파격적인 할인 혜택을 온라인 고객들에게도 제공하기 위해 지난 4일부터 17일까지 진행했다.

행사 1주차인 지난 4일부터 10일까

지 온라인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4% 증가했고, 주말인 4일부터 7일까지 매출이 최대 20% 늘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첫 주차에는 수산물 매출이 크게 증가했다. 홈플러스 온라인은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각종 수산물 최대 50% 할인 행사를 진행했는데 민물장어, 생물우럭 등 생물구색선어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0배 이상 폭등했다. 연어 매출은 576%, 해동 새우 매출은 247% 올랐다.

이 기간 가전도 좋은 실적을 거뒀다. 대형가전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222% 까지 증가했다. /최빛나 기자



“바쁜 일상 속 지친 몸·마음 간편하게 챙겨요”

봄철 환절기는 건강 관리에 더욱 신경 써야 하는 시기다. 따뜻한 봄 햇살 속의 황사, 미세먼지, 꽃가루는 건강을 위협하는 불청객이다. 또 일교차가 크고 대기가 건조해지는 날씨 영향으로 면역력이 떨어져 감기나 각종 질병에 노출되기도 쉽다. 이러한 몸의 피로와 함께 스트레스로 활력을 잃는 현대인들도 늘어나고 있다. 일상생활에서 피로를 회복하고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식

습관을 통한 영양소 섭취, 과도한 당이나 카페인 섭취 자제하기, 충분한 숙면 등이 우선되어야 한다. 주기적인 운동이나 가벼운 스트레칭 같은 생활습관을 갖추는 것도 필요하다. 국내 제약 업계는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으로 건강을 챙길 수 있는 방법도 제안한다. 바쁜 사회에서 현대인들이 지친 몸과 마음을 챙기는 데 도움을 주는 제품들을 알아본다. /이세경·이청하 기자 seilee@metroseoul.co.kr

초고령 사회 진입... '인지기능' 관리할 때

종근당 브레이닝 캡슐
현대 사회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가운데 종근당이 뇌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제품을 선보인다. 종근당은 최근 기억력 감퇴 개선제 '브레이닝' 캡슐을 출시했다. 브레이닝은 은행엽건조엑스 60mg과 인삼40%에탄올 건조엑스 100mg을 복합한 일반의약품이다. '인삼40%에탄올 건조엑스'는 인삼을 40% 농도의 에탄올로 추출, 여과 농축을 통해 얻은 인삼추출물이다. 종근당에 따르면 브레이닝은 임상시



선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2주간의 휴약 기에는 효과가 유지된 것도 특징이다. 아울러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23년 4분기 기준 국내 합계출산율이 0.65명으로 감소하면서 국내 전체 인구의 20% 이상을 65세 이상이 차지할 것으로 예고됐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는 신체 능력과 인지 기능이 저하되는 노인성 질환에 대한 소비자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종근당의 설명이다. 무엇보다 종근당은 65세 이상 성인 9477명을 대상으로 주관적 기억 장애의 여부를 질문했을 때 57.3%의 높은 비율로 기억력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설명한다.

험에서 집중력 및 주의력 저하, 기억력 감퇴 등과 관련된 효능을 보였다. 또 현기증 등 말초 동맥 순환장애 증상 개선에도 효과를 갖췄다. 브레이닝은 제조사인 스위스 SFI사가 진행한 임상에서도 약물 복용 첫날부터 인지기능 개선이 시작됐고 복용 30일 후에는 인지기능이 뚜렷하게 개

피로부터 갱년기 홍조... 이제는 안녕!

광동제약 경옥고
광동제약 '경옥고'가 피로 회복과 면역력 증강 효과에 이어 갱년기 장애 개선 효능을 입증하며 주목을 받고 있다. 광동제약은 최근 경옥고의 갱년기 장애 효능에 대한 새로운 연구결과를 공개했다. 국제 저널 '프론티어스(Frontiers in Nutrition)'에 게재된 논문 '팻드에서의 식물성 에스트로겐 활성 촉진을 통한 폐경 후 골다공증에 대한 경옥고와 경옥고갈근혼합물의 개선 효과'에 따르면 경옥고는 동물실험에서 여성 갱년기 대표적 증상 중 홍조, 조골세포 활성 감소, 혈중지질 증가 등에 대한 개선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 갱년기를 유도한 랫드에 경옥고를 매일 일정량 경구투여한 결과, ▲ 꼬리 피부온도가 대조군에 비해 감소(5.5% ↓) ▲ 조골세포 활성의 대표적인 바이오마커 '혈청 오스테오칼신' 양 상승 ▲ 에스트로겐 수치 감소로 인한 혈중 지질(LDL) 증가 개선 등 유의한 수치를 확보했다. 광동제약은 그동안 항피로 효능



(2016, 생약학회지), 면역증강효과(2019, 대한 본초학회지), 갱년기 증후군(2020, 생약학회지) 등 연구를 지속해 경옥고 처방의 효능을 학술적 근거로 입증하고 있다. 2019년에는 SCI급 국제 학술지 '국제 환경 보건 연구 저널'에 게재된 '미세먼지가 유발하는 염증 반응에 대한 경옥고의 억제효과' 연구가 주목 받았다. 마우스를 대상으로 실시된 실험에서 미세먼지로 인해 높아진 혈관 투과성을 경옥고가 유의한 수준으로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동제약 관계자는 "이번 연구는 지난 2020년 갱년기 증후군 중 인지기능 및 우울감 개선에 대한 연구 이후 추가로 확인한 효과"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연구결과를 통해 과학적 근거로 제품력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량영양소·멀티비타민으로 춘곤증 극복

동아제약 오쏘몰 바이탈 m·f
봄바람이 살랑이는 때면 나른한 기분에 온종일 몸을 가누지 못한다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이러한 춘곤증은 새로운 환경에 우리 몸이 대처하고 있다는 신호지만 자칫 피로감, 집중력 저하, 무기력증에 그치지 않고 소화불량, 식욕부진, 두통 등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그렇다고 춘곤증을 이겨내기 위해 카페인 음료를 과도하게 섭취하는 것은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람마다 다르지만 카페인의 각성



효과는 4~8시간 정도다. 오후에 커피를 마시면 밤에 잠이 오지 않아 다음날 더 많은 피로를 느낄 수 있다. 이와 관련 동아제약은 춘곤증 예방에는 미량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해 생체 리듬을 바로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봄이면 냉이, 두릅, 달래, 씩 등의 나물 섭취를 늘리는 것도 같은 이
유다. 또 비타민, 미네랄 등을 한 번에 보충할 수 있는 멀티비타민 제품을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아울러 동아제약은 멀티비타민 개발에는 미량영양소의 특성에 따라 흡수율을 높이는 최적의 제형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특히 동아제약 고급 비타민 '오쏘몰'은 정확한 양의 미량영양소를 알맞은 제형으로 보충함으로써 잠든 세포 하나하나의 기능을 깨우는 것으로 한다. 오쏘몰 신작 바이탈 m, 바이탈 f는 성별에 따른 필요 영양을 담아 일상 속 생동하는 에너지를 지원한다.

효과를 높인다. 오쏘몰은 미량영양소를 알맞은 제형으로 보충함으로써 잠든 세포 하나하나의 기능을 깨우는 것으로 한다. 오쏘몰 신작 바이탈 m, 바이탈 f는 성별에 따른 필요 영양을 담아 일상 속 생동하는 에너지를 지원한다.

나른한 봄, '아르기닌'으로 무기력증 타파

유한양행 라라올라액
유한양행이 판매하는 고품질 아르기닌 제품 '라라올라액'이 나른한 봄, 무기력증 증상 개선 효과로 주목을 받고 있다. 라라올라액 20mg은 1일 1회 용법으로 피로 회복에 도움을 주는 L-아스파르트산-L-아르기닌 5000mg(L-아스파르트산-L-아르기닌 수화물 5290mg) 함유했다. 정신적·신체적 무기력 증상과 야미노산 결핍상태 회복의 보조요법에 효능을 가지며, 현대인들의 에너지 생성, 혈액순환 개선, 심혈관질환 예방, 피로물질 배출 등에 도움을 준다. 라라올라의 주 성분인 아르기닌은 우리 몸의 대사와 해독에 작용하는 주요 아미노산 중 하나로, 간기능 개선과 혈관 기능 향상 및 운동 수행력 향상, 근육 회복을 돕는 것으로 알려진 성분이다. 아르기닌은 체내 암모니아에 의한 독성을 제거하여 우리 몸의 노폐물을 배출시키고, 산화질소의 전구체로



서 혈관을 확장시키는 작용을 한다. 또 아스파르트산은 체내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구연산 회로에 작용하고 피로물질이라 불리는 젖산이 축적되지 않게 하여 피로회복과 체력을 향상시켜준다. 아르기닌과 함께 처방되어 정신적, 신체적 피로를 회복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유한양행 관계자는 "라라올라는 고품질 아르기닌 함유량과 탁월한 성능으로 건강과 활력을 추구하는 소비자들에게 적합한 제품"이라며 "매일 피로를 느끼는 직장인, 운동을 좋아하는 분, 학생 및 수험생, 근력이 필요한 시니어 등 남녀노소가 복용해도 좋다"고 설명했다.

수면·혈당·다이어트... 나에게 필요한 제품은?

동국제약 마이핏
동국제약은 봄을 맞아 겨우내 운동량 감소로 저하된 면역력을 높이고 늘어난 체지방을 관리하는 데 앞장선다. 무엇보다 동국제약은 다양한 소비자 라이프 스타일에 따른 맞춤형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우선 동국제약은 수험생과 직장인을 포함해 온 가족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제품으로 '마이핏V' 제품군을 추천한다. '마이핏V 멀티비타민128'은 12종의 비타민과 8종의 미네랄 성분을 담고 있다. 액상 비타민과 정제 캡슐을 동시



'마이핏V 수면리듬 락티움'은 수면의 질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이다. 또 '마이핏B 혈당 앤 유산균'은 식후 혈당 상승을 억제하고 장의 활동을 돕는 등 이중 기능을 갖췄다. 1캡슐에 유산균 증식 및 유해균 억제, 배변활동 원활 기능까지 더했다. 이와 함께 '마이핏S 혈당&핑크핏 다이어트'는 식후 하루 1정씩 간편한 복용으로 건강한 다이어트와 라인 유지를 원하는 소비자를 위한 제품이다. 이밖에 동국제약은 '내 건강을 위한 핏(fit)한 영양설계'라는 의미를 담아 마이핏S 4종, 마이핏B 4종, 마이핏V 9종 등 총 17종의 제품을 보유하고 있다.

에 복용해 체내 흡수가 빠른 것도 특징이다. '마이핏V 비오틴 판토텐산 플러스'는 비오틴과 판토텐산을 1일 영양성분 기준치 대비 1000% 이상 함유해 머리부터 발끝까지의 활력에 도움을 준다.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후카후카스튜디오] 에서 다양한 귀여움을 만나보세요!

인스타그램 @hookka.hookka.studio

공식 홈페이지 ddada.kr

후카후카스튜디오

공식홈페이지 구경하기 ▼





근로복지공-제주도, 배달 직군 등 산재보험 가입 지원

근로복지공단은 22일 제주특별자치도와 '산재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배달·이동 등 8개 직군 산재보험료 중 노무제공자 본인 부담분의 90%를 최대 8개월간 1억여원의 예산 범위 내 지원한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오른쪽)과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KB자산운용, '상생 소비X상생 나눔 프로젝트' 추진

KB자산운용이 4개월간 굿네이버스와 공동으로 'KB자산운용과 함께 하는 상생 소비X상생 나눔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전통시장 소상공인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적 고립 우려 어르신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했다. 김영성 KB자산운용 대표가 전통시장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있다. /KB자산운용



인포뱅크-SBH, 바이오 스타트업 발굴 업무협약

인포뱅크(주)가 지난 19일 서울 동대문구 서울바이오허브 글로벌센터에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서울바이오허브사업단(SBH)과 유망 바이오 스타트업 발굴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김현우 서울바이오허브 단장, 이한수 인포뱅크 아이엑셀 파트너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인포뱅크



SK증권 "담배꽂초 없는 영등포 만들어요"

SK증권이 '지구의 날'을 맞아 여의도 일대에서 '담배꽂초 없는 영등포 만들기'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SK증권 임직원 20여 명을 포함해 영등포구청과 다올금융그룹, 신한투자증권, 콘래드서울 및 영등포구 자원봉사센터, CSR Impact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여의도 일대의 흡연 부스를 중심으로 담배꽂초 줍기와 제대로 버리기 캠페인을 진행했다. /SK증권



중기사랑나눔재단, 1사1촌 일손돕기 봉사활동

중기기업사랑나눔재단은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1사1촌 결연을 맺은 충북 보은군 장재리마을을 방문해 고추밭 비닐 씌우기 등의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임직원과 대학생 서포터즈 등 15명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기업사랑나눔재단

JW그룹, 故 이종호 명예회장 1주기 추모식

“‘제약보국’ 유지 받들며 세계적인 신약개발 최선”

(製藥保國)

홍상 제막식... 생명존중 정신 기려 이경하 회장 등 주요 경영진 참석

JW그룹은 고(故) 이종호 명예회장의 타계 1주기 추모 행사를 지난 19일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경기도 과천시 소재 JW과천사옥에서 열린 추모식은 생전 소탈하게 살아온 고인을 기려 간소하게 진행됐다. 이 명예회장에 대한 추모묵념을 시작으로 약력 소개와 추모사 낭독, 추모 영상 상영, 이경하 JW그룹 회장을 비롯한 주요 경영진의 헌화로 이어졌다.

송파(松坡) 이종호 명예회장은 한



JW그룹은 고(故) 이종호 명예회장의 타계 1주기 추모 행사를 지난 19일 진행했다. 경기도 과천시 소재 JW사옥에서 이 명예회장의 홍상을 공개하는 제막식이 이뤄지고 있다. /JW그룹

평생 필수약품부터 혁신신약까지 '약다운 약'을 만들어 국민 건강을 지키는 '제약보국(製藥保國)' 실현에 앞장섰다.

한성권 JW그룹 부회장은 추모사에서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약다운 약'을 만들기 위해 평생을 바쳐왔던 이종호 명예회장의 생명

존중과 도전정신의 창업정신은 오늘날 JW그룹이 지속적인 혁신과 성장을 이뤄내는 원동력이 되었다"며 "제약보국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도전과 혁신을 거듭했던 명예회장의 유지를 받들며, 세계적인 신약개발을 향한 비전에 한마음 한 뜻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날 추모식 이후 참석자들은 이 명예회장의 홍상 제막식을 갖고, 대한민국을 의약강국으로 만들기 위해 아무나 갈 수 없는 험한 길을 걸었던 고인의 정신을 기렸다.

/이세경 기자 seellee@metroseoul.co.kr



현대제철이 '나도 시민과학자' 프로젝트를 통해 당진지역 청소년들과 함께 지역의 멸종위기종 보전을 위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현대제철

현대제철, 지역 생태자원 지킨다

'나도 시민 과학자' 프로그램 시행 학생들과 멸종위기종 보전 등 활동

현대제철이 당진지역 청소년들과 함께 지역 생태자원 지킴이 역할에 앞장선다.

현대제철이 월드비전, 한국생태관광협회 등 NGO와 함께 당진시 청소년을 대상으로 '나도 시민 과학자'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나도 시민 과학자'는 당진시에 거주 중인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 때까지 총 20명의 학생들을 선발해 지역의 다양한 생태자원 현황을 조사하는 프로그램이다. 생물다양성

의 의미와 보전에 대한 관심을 높인다는 취지로 기획됐다.

지난 4일부터 15일까지 지역 언론 및 온라인 신청을 통해 공개모집된 20명의 학생들은 지난 20일 발대식을 시작으로 6월 16일까지 활동하게 된다.

학생들은 본격적인 활동에 앞서 사전교육을 통해 생물다양성의 가치와 당진 지역의 생태자원 현황, 시민과학자의 의미와 역할, 생물 관찰과 기록 방법에 대해 교육을 받고 이후 음섬포구, 당진천 등 현장에서 생태 모니터링과 조사를 진행하며 시민과학자의 역할을 체험할 계획이다.

/차현정 기자 hyeon@

삼성바이오로직스, 'ESG 캠페인' 전개

계단 이용 등 실천 가능한 활동 제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ESG 경영을 강화한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최근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2024 ESG 캠페인'을 시작했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캠페인을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조명 소등, 종이 절약, 계단 이용, 텀블러 사용 등 일상에서 실천 가능한 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전력 소모량을 줄이기 위해 점심시간 30분 동안 교대 근무자 사무실을 제외한 모든 사무실의 조명을 소등한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올해 3월부

터 2공장에 자동 소등 시스템을 적용했다. 향후 해당 시스템 적용 범위를 전 공장으로 확장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연간 35.4 메가와트시(MWh) 상당의 전력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는 연간 약 250만대 휴대폰을 완충할 수 있는 전력량이라고 설명한다.

이밖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불필요한 출력물 인쇄를 줄이고, PC 화면으로 자료를 공유하는 등 종이 절약 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는 계단 이용과 텀블러 사용을 권장한다.

/이청하 기자 mlee236@

소진공, '전기요금 지원사업' 마감 연장

6월 30일까지 신청 접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영세 소상공인 대상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신청 마감기한을 6월 30일로 연장한다.

22일 소진공에 따르면 이번 지원 대상은 ▲2023년 이전 개업해 1차 사업 공고일(2024년 2월 15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니고 ▲2022년 또는 2023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이며 ▲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다.

지원 대상으로 최종 확인된 신청자는 전기요금을 최대 2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신청 마감기한은 한국전력(구역전 기사업자 포함)과 계약을 체결하고 전기를 사용하는 '직접 계약자'와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한 후 그에 대한 대가를 부담하는 '비계약 사용자' 모두 6월 30일까지 일괄 연장한다. /김승호 기자 bada@

송실대, 'ICPC 월드파이널' 진출

韓 대표 출전... 24위·118위 성과

송실대학교는 재학생들이 지난 18일 이집트 룩소르(Egypt Luxor)에서 개최된 '제46회 및 47회 국제대학생 프로그래밍 경시대회(ICPC, International Collegiate Programming Contest) 월드 파이널'에 대한민국 대표로 출전해 24위와 118위의 성적을 거뒀다고 22일 밝혔다.

ICPC는 전 세계 3000여 개 대학에서 6만여명 이상 학생들이 참여하

는 프로그래밍 대회다.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46회와 47회가 동시에 진행된 이번 대회에는 국내 예선을 통과한 송실대, 서울대, 카이스트(KAIST) 등 3개 대학에서 각 회차별 1개 팀(총 6개 팀)이 대한민국 대표로 출전했다.

이번 대회에서 'LongestPathToWF'팀(오주원, 이성서, 안용현, 지도교수 이상준)과 'NLP'팀(나정휘, 박찬술, 김도현, 지도교수 김철홍)은 각 24위(46회)와 118위(47회)를 기록했다. /이현진 기자 ihj@

뷰티컬리, '지구의 날' 특별 기획전

클린뷰티 상품 최대 57% 할인

뷰티컬리가 지구의 날을 맞아 착한 소비를 위한 큐레이션을 준비했다.

리테일테크 기업 컬리는 '클린뷰티 시작하기' 특별 기획전을 이달

29일까지 열고, 350여개 친환경 뷰티템을 선보인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기획전에서는 성분은 물론 패키징, 제작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엄선한 클린뷰티 상품을 최대 57% 할인 판매한다. /최빛나 기자 vitna@

인사

◆감사원 ◇고위감사공무원 승진 △국장급 국회사무처 파견 정희중

◆국토교통부 ◇국장급 승진 △물류정책관 김근오

부음

▲민수자씨 별세, 원종윤(안성정보 대표이사)씨 모친상 = 21일,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1호, 발인 24일 8시 40분, 장지 성남영생원·국립서울현충원.

ION SUPPLY DRINK

POCARI SWEAT

동아오츠카



POCARI SWEAT is a drink which supplies water and electrolytes lost through perspiration. POCARI SWEAT is quickly absorbed into the body tissues due to its fine osmolality and contains electrolytes for replenishing body fluids. POCARI SWEAT is thus highly recommended as a beverage for such activities as sports, physical labor, after a hot bath, and even as an eye-opener in the morning.

500 ml (120 kcal)

유통기한 확인하여 식품안전에 유의하세요

“따릉이에 유아용 안장 도입하고 한강 다리에 구조용 계단 설치를”

‘상상대로 서울’ 민원 접수
“13세 미만 상해보험 적용 안돼
유아용 안장은 도입 불가” 답변
“교량 기초에 사다리 설치 힘들고
유속에 의한 파손 등 유지 어려워”

서울시민들이 따릉이에 유아용 안장 도입, 한강다리에 구조용 사다리 설치, 차선 시인성 개선을 서울시에 요구했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정책 제안 플랫폼 ‘상상대로 서울’에 유아용 안장이 장착된 따릉이를 마련해달라는 민원이 접수됐다. 전도 씨는 “가까운 거리를 갈 때는 가족이 다 함께 따릉이로 이동하고 싶을 때가 많은데 아이들이 아직 자전거를 혼자 탈 수 있는 나이가 아니라 할 수 없이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한다”며 따릉이에 유아용 안장을 설치해 달라고 요청했다.

시는 ▲특정 수요 반영시 재정 소요 증가 ▲대여소 배치·정비 등 관리상 문제 야기 ▲안전사고 발생시 만 13세 미만 이용자는 상해보험 적용 불가를 이유로 따릉이에 ‘유아용 자전거 안장’ 도입이 불가하다고 답변했다.

한강다리 밑에 구조용 사다리를 설치해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시민을 구하자는 아이디어도 나왔다. 황모 씨는 “가끔 삶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거나 실수로 한강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이 후회로 다시 삶을 갈구하게 될 때 잡고 오를 수 있는 곳 중 하나



서울 종로구 광화문역 인근에 따릉이가 세워져 있다. /뉴시스

가 한강다리 기둥들이다”며 “이곳에 수영장 사다리와 같은 구조물을 설치하거나 계단을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하기 수월할 것 같다”고 정책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시는 기존의 교량 기초에 사다리나 계단을 설치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설령 설치를 하더라도 하천 유속에 의해 파손될 수 있고 유지 관리가 어려워 한강다리 아래에 사다리 혹은 계단을 마련할 수 없다고 답했다.

시 교량안전과는 “한강 교량에서의 자살 예방을 위해 안전 난간을 설치 중이다”며 “또 인공지능 CCTV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으로 투신 시도자가 있는 경우 119구조대, 수난구조대, 경찰이 동시 출동해 구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우천시 도로의 차선 시인성이 떨어진다. 지적도 제기됐다. 민원인은 “서

울 시내에서 운전을 하다가 비가 오면 차선이 전혀 보이지 않아 위험하다고 느낄 때가 많다. 다른 운전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똑같은 말을 한다”면서 “차선이 안 보이는 도로는 감으로 운전해야 할 정도이다”며 차선 개선을 주문했다.

시 도로관리과는 “야간 및 우천시를 고려해 2021년부터 기존 차선보다 시인성이 향상된 고성능 차선도색(상온경화형 도료+고굴절 유리알)을 도입했다”며 “다만, 폭우로 인해 도로 위에 수막이 형성되면 시인성이 현저히 떨어져 차선에 표지병을 병행 설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천시에도 시인성을 유지할 수 있는 보완책을 다방면으로 강구하고 있다”며 “안전하고 선명한 서울시 도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경기도, 올해 장애인 평생교육에 60억 투입

학력 보완·문화 등 6개분야 지원

경기도가 올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6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장애인들에게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22일 도에 따르면 도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평생교육시설 지원 ▲평생교육 우수사례 발표회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 운영 ▲평생학습도시 조성 ▲평생교육 이용권 사업 등 6개 사업을 추진한다.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업은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기관에 학력 보완, 문화, 직업능력 향상, 문화예술, 인문교양, 시민참여 등 6개 분야의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 성인 장애인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또한 도내 23개소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에 프로그램 운영비와 평생교육사 인건비를 지원하고,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 3개소를 위탁 운영한다.



장애인 평생교육 우수사례 발표회 난타 공연.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시는 도내 군포, 양평 등 18개 시군에 조성돼 장애인 평생교육을 위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장애인 평생교육 이용권 사업은 화성, 안산 등 11개 시가 선정돼 장애인 1인당 35만 원의 평생교육 강좌 수강료와 교재비를 지원받고 있다.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와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을 희망하는 장애인은 시군 평생교육과에 문의하면 참여할 수 있다.

/수원(경기)=김대의 기자 dykimi@

독서교육통합플랫폼 ‘독서로’ 오늘 개통

교육부, 기존시스템 통합·고도화
빅데이터 기반 맞춤 도서추천 제공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독서교육통합플랫폼 ‘독서로’ 구축을 완료하고 23일 전면 개통한다고 22일 밝혔다.

‘독서로’는 17개 시도교육청별로 구축·운영돼 온 기존 독서교육종합지원 시스템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통합·고도화한 것이다. 학생 독서활동 이력을 기록·관리해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도서 추천 등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상호작용 중심의 독서교육 활동을 지원한다.

학생은 ‘독서로’에서 읽고 싶은 책을 검색해 학교도서관에서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인기도서·신착도서·추천도서 등을 확인해 ‘나의 책장’에 담아 독서 관심 목록을 구성할 수 있으며, 자신이 읽은 책에 대한 감상평과 별점을 친구들과 공유할 수 있다.

또한, 독후활동을 사진·음성·텍스트·영상 파일 등으로 업로드 기록할 수 있고, 교사에게 피드백도 받을 수 있다. 독서활동 이력은 전학·졸업 등으로 학적이 변동돼도 ‘독서로’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독서 포트폴리오로 만들 수도 있다.

교사는 ‘독서로’에서 밸런스게임, 독서마라톤 등 독서교육 콘텐츠를 직접 제작하고 동아리·학급·교과·학년·학교 등 다양한 형태의 독서교육 활동 그룹을 개설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학생 참여형 독서교육 활동을 진행하고 학생의 독후활동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다.

교육부는 “안정적인 개통을 위해 지난 1일부터 시험운영(베타테스트)을 통해 초기 오류 제거 및 기능 점검을 수행 중에 있다”라며 “아울러 상담센터를 운영해 새로운 시스템의 안정적인 현장 안착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현정 기자 lhj@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도 서울시 “출산휴가 가세요”

‘전국 최초’ 총 240만원 90일 보장
남성에도 배우자 출산 휴가지원금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에게 출산급여를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출산한 여성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는 기존 고용보험 지원액(150만원)에 시가 90만원을 더해 총 240만원(90일)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출산 배우자를 둔 남성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에게도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으로 80만원이 지원된다.

다태아임산부는 단태아임산부보다 30일 긴 120일의 출산 전후 휴가를 보장해 총 3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임산부 출산급여와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은 본 대책이 발표된 22일 이후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와 조례 개정 등 사전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낙후지 않은 여건 속에서도 탄생의 기쁨을 실현하고 있는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분들이 이 시대의 진정한 영웅”이라며 “이번에 새롭게 준비한 출산급여 지원 사업이 도움됐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서울시, 내달 1~6일 ‘서울페스타 2024’ 행사

봄의 절정인 5월, 서울의 멋과 맛과 흥을 즐길 수 있는 특별한 축제가 찾아온다.

서울시는 내달 1~6일 서울광장, 광화문광장 등 도심 곳곳에서 ‘서울페스타 2024’ 행사를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축제 주제는 ‘인조이 올 댓 서울(Enjoy All That Seoul)’이다. 먼저 서울광장은 3일간 다양한 ‘파티존’으로 꾸며진다. 다음달 1일 ‘서울페스타 2024 개막파티’를 시작으로, 5월 2~3일에는 서울의 문화·공연 등을 선보이는 ‘블라썸파티’와 뷰티·댄스 실력을 뽐낼 수 있는 ‘K-스타 챌린지’가 열린다.

광화문광장은 거대한 놀이 공간인 ‘플레이그라운드존’으로 바뀐다. 축제 기간 서울의 문화, 패션, 뷰티, 음식 등을 경험할 수 있는 ‘서울스타일로드’가 상시 운영된다.

/김현정 기자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5:47 | 해질 / 19:15

4월 23일(화) 음력 : 3월 15일

수도권 날씨 13 ~ 23°C

운동 지수: [Progress bar]

빨래 지수: [Progress bar]

세차 지수: [Progress bar]

외출 지수: [Progress bar]

지역별 날씨: 연천 9/22, 동두천 10/23, 가평 9/21, 양평 10/23, 용인 13/23, 평택 11/23, 수원 13/23, 인천 13/22, 파주 9/22, 백령도 11/17, 서울 13/23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곰팡이’ 하얼빈 맥주에 韓 소비자도 불안
▲“美, 中 금융기관 제재 검토…블링컨 방중 기간 경고할 듯” /사진 뉴시스

▲日 방위성 “北, 탄도미사일 가능성 있는 물체 발사”
▲이라크 모술에서 시리아내 미군기지로 로켓 발사, 이라크군이 발사차량 발견



▲美 유권자, 바이든-트럼프 재대결에 시큰둥…“관심 있다” 20년만에 최저
▲中 남부, 폭우로 “100년만의 대홍수” 우려…비상대응 강화 /사진 뉴시스



급식·식자재 업계
악재 대비
수익처 다변화
니



Life

봄 건강 특집
환절기 건강관리
간편하게 챙겨요
L2



꿈 키우고, 환경 가꾸고... 빛나는 내일 만드는 '따뜻한 금융'

살맛나는 세상 이야기 ESG 경영시대

신한라이프

신한라이프는 지난 2021년 신한생명과 오렌지 라이프생명이 합병하면서 출범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윤리경영으로 고객의 신뢰 속에 지속 성장하는 보험사가 되고자 '뉴 라이프, 라이프(New Life, Life)에 새로운 가치를 더하다'라는 비전을 정했다.

금융 본연의 업(業)을 통해 어려운 고객과 이웃을 돕고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데 기여하는 '사랑과 행복을 나누는 따뜻한 보험사'로 거듭나겠다는 방침이다.

신한라이프는 "금융 본연의 업(業)을 통해 세상을 이롭게 하는 '따뜻한 금융'을 적극적으로 실천할 것"이라며 "소외된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사회적 책임을 다함으로써 '사랑과 행복을 나누는 따뜻한 보험사'가 되고자 한다"고 밝혔다.

◆ '재능클래스'...스포츠 재능 발견 지원

'신한라이프재능클래스'는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스포츠와 문화·예술 분야의 교육 기회를 제공해 흥미를 키우고 재능을 발견하기 위한 사회공헌 사업이다.

아동·청소년 이용시설 내에 연간 스포츠 교실을 운영해 아이들의 재능 발견을 지원한다. 다양한 스포츠 수업을 통해 취약계층 아동과 청소년이 꿈을 발견하고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갈 수 있게 응원한다.

재능클래스에서 우수한 재능을 보인 아동·청소년을 신한라이프장학프로그램 '꿈 찾기 장학금' 대상자로 선발해 재능을 지속적으로 키워나갈 수 있도록 후원하고 있다.

신한라이프의 사회공헌재단인 신한라이프빛나는재단은 지난 3월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2024 신한라이프재능클래스' 후원금 4억원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전달했다.

이번 후원금은 선정된 기관 43곳에서 스포츠 37개 종목과 문화·예술 17개 분야의 수업에 참여하는 약 700여명의 아이들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① 지난 3월 서울 중구 신한라이프 본사에서 김순기 신한라이프빛나는재단 사무국장(왼쪽)과 이수경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부회장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② 지난해 10월 서울시 중구 청계천에서 '빛나는한걸음 캠페인'에 참여한 직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지난 1월 서울 중구 소재 신한라이프 본사 대강당에서 열린 '경영전략회의'에서 이영중 신한라이프 사장(첫줄 오른쪽 다섯번째)이 임원 및 신입사원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신한라이프

취약계층 아동들에 교육기회 제공 스포츠, 문화·예술 분야 꿈나무 육성

임직원,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 참여 아동청소년 시설 개·보수 환경개선 장애인 복지기관에 휠체어 기증도

환경정비활동 등 청계천 가꾸기 봉사 서울-한전과 거리 아트갤러리 조성 발달장애인 작가 작품 전시, 자립 도와

신한라이프빛나는재단은 지난 2018년부터 현재까지 아동이용시설 230곳에 약 24억원을 지원하고 3700여명의 어린이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했다. 특히 우수한 잠재력을 가진 아이들은 장학프로그램으로 연계해 지속적으로 재능을 계발할 수 있도록 후원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 '빛나는봉사단'...임직원 참여형 캠페인

'신한라이프빛나는봉사단'은 신한라이프 임직원들이 직접 참여하는 생활환경개선 캠페인이다. 서울 시내 노후화된 아동·청소년 시설을 개·보수해 우리 미래세대인 아동과 청소년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신한라이프는 '빛나는한걸음 캠페인'을 통해 작년 10월과 지난 3월 각각 서울시 소재 장애인복지기관에 휠체어 75대를 기증하고 탄소저감 활동에 동참한 바 있다.

빛나는한걸음 캠페인은 취약계층 지원과 탄소저감 활동에 동참자는 취지로 임직원이 캠페인 기간 동안 걸음기부 목표를 달성하면 장애인복지기관에 휠체어를 기증하고 이와 연계해 숲을 조성하는 참여형 기부 캠페인이다.

지난 10월에는 서울시 중구장애인복지관, 밀알복지재단,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등 3개 기관에 75대의 휠체어를 전달했다. 올해는 3월 18일부터 4월 12일까지 4주간 임직원이 일상생활 걷기를 통해 5000만 보를 달성할 경우 보행장애 아동을 위한 특수 제작 신발을 기부할 예정이다.

신한라이프 관계자는 "빛나는한걸음 캠페인은 건강도 챙기고 환경보호와 나눔에 동참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으로 자발적 참여에도 임직원 참여율이 높아지고 있다"며 "신한라이프는 앞으로도 임직원들의 진정성을 담아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따뜻한 온기를 나누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지역환경개선'...휴식 및 예술 공간 조성

신한라이프는 지난해 10월 서울시설공

단과 '청계아띠' 공동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면서 청계천 가꾸기에 동참하고 있다. 청계아띠는 '청계천을 지키는 아름다운 띠'라는 의미로 기업이나 단체가 참여해 청계천을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으로 조성하기 위한 활동이다.

지난 5일 신한라이프는 시민 휴식공간을 개선하고자 서울 청계광장 일대에서 서울시설공단이 주관하는 청계아띠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임직원 약 30여명이 참여해 청계광장 분수 수조와 행운의 동전던지기 모형인 팔석담에 겨우내 쌓여있던 이끼를 청소했다. 청계천 일대의 거리화분, 피녹지대 등에 다양한 꽃을 심어 아름다운 꽃길을 조성하는 등 환경정비 활동을 진행했다.

신한라이프 관계자는 "청계아띠는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협력해 지역사회의 환경을 개선해 나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9일 서울시 중구청, 서울중구장애인복지관, 한국전력공사와 '거리 아트갤러리'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거리 아트갤러리는 발달 장애인 작가의 다양한 회화 작품을 서울시 중구 거리에 있는 한전 지상기합에 부착해 지역사회의 경관을 개선하고 시민들에게 가까운 곳에서 예술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공헌사업이다.

신한라이프는 거리 아트갤러리 조성을 위해 설치 비용과 발달 장애인 작가에게 지급되는 작품 창작비로 1억원의 기부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ESG경영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사업의 취지에 걸맞게 갤러리 제작 시 친환경 원재료를 사용한다.

신한라이프 관계자는 "이번 사회공헌사업은 도시의 경관을 아름답게 개선할 뿐만 아니라, 창작물에 대한 보상을 통해 장애 예술인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데에도 큰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한일전 승리하면 '파리행' 길목서 '한국인 사랑담' 맞대결
▲'더블A' 고우석, 1이닝 2실점 역전 허용...시즌 2패째 /사진 뉴시스

▲이건희컬렉션 '임진진찬도'·보물 '서직수 초상' 공개
▲지휘자 이승원, 말고국제공쿠르 한국인 첫 우승



▲문체부, 9월 '대한민국 미술축제'... '통합 홍보·관광상품 개발'
▲5월8일부터 상반기 경복궁 야간관람 /사진 뉴시스